



## 트럼프 ‘관세 폭격’ 中 정조준 숨통 튼 삼성, 발등의 불 애플

美, 中에 125% 보복관세 단행  
애플, 아이폰 90% 中서 생산돼  
美 출고가 2배인상 가능성 제기

삼성은 생산지 다변화로 안도  
장기적 관세회피 탈중국 불가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폭탄’이 우선적으로 중국에만 정조준되자, 글로벌 전자업계 양대 죽인 삼성전자와 애플의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아이폰의 90% 이상을 중국에서 생산하는 애플은 가격 급등 압박에 직면한 반면, 베트남과 인도의 생산 비중이 높은 삼성전자는 일단 한숨을 돌리는 분위기다.

9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04%에서 125%로 추가 인상한다고 발표했다. 중국의 보복 관세에 대한 대응 조치다. 반면 한국, 베트남, 인도 등 56개국은 90일간 관세를 10% 수준으로 낮춰주는 유예 조치를 적용 받았다.

직격탄을 맞은 건 애플이다. 정보기술(IT) 매체 씨넷에 따르면, 아이폰16

프로 맥스(256GB)의 미국 출고가는 기존 1199달러(약 175만원)에서 최대 2698달러(약 394만원)까지 오를 수 있다. 보급형 모델인 아이폰 16e도 기존 599달러(약 88만원)에서 1348달러(약 197만원)로 두 배 이상 인상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시장조사업체 IDC는 “관세가 1대1로 가격에 전가되지는 않겠지만, 일정 수준을 넘으면 결국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애플은 현재 인도 내 생산 비중을 14%까지 끌어올리고 해당 물량을 미국으로 전량 수송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하지만 인도 생산 물량은 중국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해 미국 내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백악관은 한 발 더 나아가 애플에게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캐롤라인 레빗 백악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애플이 아이폰 생산지를 미국으로 옮길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밝힌 바 있다.

월가는 아이폰이 미국에서 만들어질 경우 비현실적인 가격대가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BofA)는 “아이폰 제작 비용이 90% 늘고 최종 가격은 25% 상승할 수

있다”며 “미국에서 최종 조립하더라도 부품 상당 부분은 여전히 중국산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은 불가피하다”고 전망했다. 웨드부시증권의 댄 아이브스는 “아이폰을 미국에서 생산할 경우 가격이 최대 3500달러(약 511만 원)에 이를 수 있다”며 미국 내 생산은 ‘망상’이라고 일축했다.

반면 삼성전자는 이번 관세 유예 조치로 ‘수혜 기업’으로 떠올랐다. 삼성은 전체 스마트폰 중 약 50%를 베트남에서, 30%를 인도에서 생산하고 있다. 두 나라 모두 유예 대상에 포함되면서 당장 미국 수출에 큰 타격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삼성은 특히 인도 노이다 공장에서 프리미엄 모델인 갤럭시S 시리즈까지 생산하며 공급망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하지만 애플과 삼성 모두 장기적으로는 ‘탈중국’ 가속화가 불가피하다는 데 입을 모은다. 닐 샤카운터포인트리서치 부사장은 “제조업체가 인도 생산 비중을 높이면 단기적인 비용 상승은 감수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관세 회피 효과를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 대내외 위기에 유통가 구조조정 칼바람

현대免, 창립 후 첫 희망퇴직 단행  
근속 3년 이상 직원도 대상자 포함  
롯데월푸드도 45세 이상 희망퇴직

대내외 위기 속 경기 침체 우려가 이어지는 가운데, 유통업계에는 구조조정 한파가 몰아쳤다. 지난해 이어 올해도 다수 유통 대기업들이 창립 후 첫 희망퇴직을 단행하면서 업계 전반에 위기감이 확산되고 있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면세점이 2021년 12월 31일 이전 입사자를 대상으로 창립 후 첫 희망퇴직을 진행한다.

희망퇴직 대상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라 위로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근속 3년 이상 직원에게는 기본급과 인센티브를 포함한 연간 급여 기준 12개월치, 5년 이상 직원은 15개월치에 해당하는 특별위로금을 각각 지급할 예정이다. 미사용 연차휴가와 수당은 별도로 지급한다.

또한, 희망퇴직 신청자에게는 내달



현대면세점 무역센터점 전경. /현대면세점

원금 1000만원과 대학생 학자금 1명당 최대 1000만원을 지원한다.

유통가 희망퇴직의 칼바람은 작년부터 본격화됐다. 특히, 면세업계 경우 지난해 롯데면세점(8월), HDC신라면세점(9월), 신세계면세점(11월)이 잇달아 희망퇴직 프로그램을 가동했다.

주목할 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이어지는 유통업계의 희망퇴직 대부분이 ‘창사 아래 처음’이라는 점이다. 지난 해 희망퇴직을 단행한 신세계면세점에 이어, 올해 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현대면세점 역시 창사 아래 처음이다.

이커머스 업계에서는 지난해 6월 롯데온이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고, 12월에 퇴직 대상을 확대해 2차 퇴직 신청을 받았다. 마트업계에서는 이마트가 지난해 3월 희망퇴직을 실시하고 12월에 적용 대상을 확대해 추가 희망퇴직 인원을 모집했다. 이들 역시 모두 창사 아래 첫 시행한 희망퇴직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메트로 한줄뉴스



▲현재 ‘尹파면’ 여론조사, 수용 74%·불수용 23%

▲한미 해군, ‘전·평시 조난상황 대비’ 연합 구조 작전 훈련 실시

/사진 뉴시스

▲“美 상호관세 유예에도 불확실성 여전”… 법정부 TF 가동

▲감사원, 새만금 챔버리 ‘총체적 부실’… 6건 징계·23건 주의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3개권역 중장기 발전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 연설…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걸겠다”



따뜻한 봄날을 한번 꼭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21대 대통령 선거 출마 영상을 공개했다.

/뉴스

##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 “진짜 대한민국 만들겠다 국민의 훌륭한 도구 될 것”

국정 철학·비전 다큐형식 영상 공개  
K-이니셔티브 새로운 국가비전 제시

다. 위대한 대한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다”며 했다.

이 전 대표는 비상계업 이후 나타난 한국 사회의 극심한 갈등의 원인을 ‘경제적 양극화’로 꼽으며 정부 차원의 대대적 투자를 통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가 민간 주도의 경제 성장을 핵심축으로 국정을 운영한 것과 차별성을 드러낸 것이다.

이 전 대표는 “근본적인 원인은 경제적인 것이다. 총량으로는 과거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데 부가 너무 한 군데 몰려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성장률 자체가 떨어져 민간 영역만으로는 경제가 제대로 유지·발전되기 어렵다. 정부 단위의 인력 양성, 대대적인 기술 연구개발 투자를 통해 경제가 다시 살 아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박태홍 기자 pth7285@

## 한숨 돌린 관세… 对美 협상시간 확보

트럼프, 韓 상호관세 90일 유예  
6·3 대선 이후 통상전쟁 본격화

한국산에 대한 미국의 ‘25% 상호관세’ 부과가 한시적으로 중단됐다. 지난 9일(현지시간) 발효된 지 불과 13시간 만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90일간의 유예 기간을 두겠다고 했다.

오는 7월 상순까지 한국 등 각국의 수출 품에 10%의 기본관세만 매긴다는 것이다. 중국만 유예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 세계의 상당 기업·정부가 시간을 벌었다. 정치 문제가 동시에 얹혀 있는 우리나라로 예기치 못한 국면을 맞게 됐다. 6·3 대선 이후에도 유예의 시간이 한 달간 더 주어진다. 이에 선거운동 기

간각후보들은 나름의 해법을 공약에서 비중 있게 다룰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업들의 존망이 걸린 위성턴발 무역전쟁이 국내에선 표를 얻기 위한 정부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우리 정부는 일단 6월3일 이전까지의 ‘1단계’ 협상에 나섰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체제하에서 양국의 통상당국이 움직인다. 관세 25%를 막기 위해선 백악관이 원하는 바를 내줘야 할 처지다. 통상 혼란뿐 아니라 국방 등의 여타 부문 요구가 협상 테이블에 올려질 수 있다. 이 경우 2개월 뒤 물러날 한 대행의 임의적 결정이 가능할지도 관건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통일부, 평화경제특구 기본구상 확정… 3개권역 중장기 발전 추진”  
▲홍준표, 대구시장 퇴임 연설… “30년 정치 인생 마지막 걸겠다”

# “저탄소 철강 개발, 수요확대 위해 글로벌 협력 확대해야”

##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

호주 세계철강협회 정기회의 방문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 방향 모색

광물·에너지 넘어 미래 분야에  
韓-호주 간 산업협력 확대 주력

“글로벌 철강사들이 다양한 탄소 저감 기술 개발에 나서고 있다. 저탄소 철강 생산 공정 개발과 탄소저감 및 미래 수요확대를 위해 글로벌 철강사들의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

10일 포스코홀딩스에 따르면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은 지난 7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세계철강협회(worldsteel) 집행위원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저탄소 공정 분야에서 협회 차원의 글로벌 협력 확대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장 회장은 세계철강협회 상반기 정기회의에 사흘간 방문해 철강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향을 모색했다.



장인화(가운데) 포스코그룹 회장이 9일(현지시간) 호주 퀸즐랜드주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찾아 사업을 점검하고 있다.

/포스코그룹

장 회장은 한-호주 경제협력위원회 자격으로 광물과 에너지를 넘어 미래 산업 분야까지 양국 간 산업 협력을 넓히는 데에도 주력하고 있다. 포스코는 이를 기반으로 호주 현지 자원 생산능력 확장과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터

미널 증설을 추진하며 에너지 사업 기반 강화에 나서는 중이다.

앞서 장 회장은 지난 3월 20일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올해 사업계획으로 호주 내 우량 자원 확보, 신규 가동 범위 확장과 국내 LNG(액화천연가스) 터

한 바 있다. 이번 출장도 사업 실행 과정 중 하나로 글로벌 공급망 확보와 에너지 자립을 위한 실질적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그는 세계철강협회 집행위원회에서 한국 철강업계를 대표해 탄소감축 등 세계 철강업계가 직면한 주요 현안과 대응책에 대해 논의했다. 장 회장은 ▲ 저탄소 공정의 환경 개선 효과 ▲ 탄소 배출량 측정기준의 글로벌 표준화 등 이번 집행위원회의 핵심 안건에 대해 발전 방향을 제언했다.

아울러 불확실한 글로벌 철강산업 환경을 타개하고 사업 협작과 기술개발 협력을 위해 글로벌 철강사 CEO들과 회동하며 새로운 기회도 모색했다. 그는 인도 JSW스틸 자산트 아치리야 사장과 일관체 철소 협작사업에 대해 다각도로 논의했으며 중국 하강그룹 리우지엔 동사장과는 현재 운영 중인 중국 내 협작사업 협력 강화 방안을 협의했다.

세계철강협회 회원사 회의에서 포스코는 4년 연속 지속가능성 최우수 멤버에 선정됐다. 이번 수상으로 포스코는 글로벌 철강업계 ESG(환경·사회·지배구조) 분야 선도기업으로서 다시 한번 입지를 공고히 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어 장 회장은 호주 퀸즐랜드주에 소재한 세넥스에너지 가스전 현장을 방문했다. 세넥스에너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지난 2022년 4억4242만호주달러(약 4000억원)에 인수한 포스코그룹 천연가스 사업의 업스트림에 해당하는 육상 가스전이다.

현재 세넥스에너지는 천연가스 생산량을 연산 20PJ(페타줄)에서 오는 2026년 60PJ(LNG 생산 약 120만 톤 규모)로 확대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생산 개발이 완료되면 동호주 지역 천연가스 내수 수요의 10%를 공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차현정 기자 hyeon@metroseoul.co.kr

## K-배터리, 美 투자·기술개발… 캐즘 회복 대비태세

### LG엔솔 등 국내 배터리 3사

1~2월 글로벌 점유율 5.5%p 하락  
유럽·북미 시장 수요 감소가 원인  
캐즘 극복 ‘불투명’ 비관 전망에도  
원통형 ‘46파이’ 양산 등 전략 강화

전기차 캐즘(수요정체기) 극복 시기로 거론되던 시점이 거듭 밀려나고 있다. 국내 주요 배터리사들의 글로벌 점유율도 하락세를 보이는 실정이다. 업계는 미국 현지 생산기지 확보에 주력하고 있으나 국내 공장 가동률이 절반 수준으로 떨어지는 등 내수 기반이 점차 흔들리고 있는 모습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의 지난 1~2월 글로벌 배터리 점유율은 전년 동기 대비 5.5%포인트 하락한 17.7%로 집계됐다. 유럽과 북미 시장에서 주요 완성차 업체들의 배터리 수요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전기차 시장이 캐즘에 본격 접어들었던 2023년 무렵 배터리사의 수장들은 2024년까지 업황이 불안정할 것으로 보면서도 이후 성장세를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캐즘 극복 시점



LG에너지솔루션 폴란드 브로조와프 공장.

으로 예상되는 불확실성이 커 회복 여부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

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밀리고 있는 분위기다. 지동섭 SK온 전 대표이사도 당시 “단기적으로 2024년까지 출렁임이 있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성장세는 꾸준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올해 1분기 실적 발표 시즌을 마주한 지금까지 업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

같은 해 증권사에서도 배터리 가격 하락으로 완성차 업계의 전기차 사업 수익성이 개선되면 판매 물량 증가를 통해 캐즘을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유럽을 중심으로 전기차 수요가 둔화하면서 글로벌 배터리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졌으며 국내 기업들의 점유율 하락 역시 여전

한 고민거리로 남아 있다.

국내 배터리 기업들의 수출·내수 합계 매출 또한 지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LG에너지솔루션의 매출액은 25조 6195억원으로 전년(33조 7454억원) 대비 24% 감소했다. 삼성SDI 배터리 부문 매출도 지난해 15조 6912억원으로 전년(20조 4061억원) 보다 23% 줄었다. SK온의 지난해 매출실적은 6조 2666억원으로 전년(12조 8972억원) 대비 51% 줄며 절반 이상 떨어졌다.

업계는 수익성 방어를 위해 미국 내 생산기지를 확보하며 현지화 전략을 펼치고 있으나 국내 생산 기반 공장의 가동률 위축은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따른다. LG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57.8%로 2022년 73.6%였던 가동률과 비교했을 때 큰 폭으로 하락했다. 삼성SDI 배터리 부문 공장 가동률은 2022년 84%에서 지난해 58%로 집계됐다. SK온의 지난해 평균 가동률은 43.8%로 2022년 86.8%에서 절반 이하 수준으로 주저앉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올해 각사 CEO들은 캐즘 극복 시점을 하반기로 내다보며 점진적인 회복을 기대하는 분위기

다. 그럼에도 해외 시장 불확실성과 수요 회복 지연 등 변동성이 큰 만큼 업계 인내에서는 낙관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 팽배하다.

김동명 LG에너지솔루션 사장은 지난 3월 ‘인터배터리 2025’ 행사에서 “1분기 혹은 상반기 업황이 저점을 찍고 하반기부터 점차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최주선 삼성SDI 대표도 “1분기를 저점으로 2분기부터 (업황이) 점차 회복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배터리 업계는 캐즘 장기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신제품과 신기술 개발에 속도를 내며 시장 회복 이후를 대비하고 있다. LG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은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 ‘46파이’ 양산으로 앞서나간다는 전략을 강화하는 데 한창이다.

업계 관계자는 “전기차 시장은 각국의 연비 및 이산화탄소 배출 규제 강화, 신차 출시, 주행거리 개선 등으로 중장기적으로는 계속 성장할 것”이며 “배터리 산업 자체가 해외 시장에 맞춰 글로벌화된 구조가 긴 하지만 국내 생산 기반이 약화되지 않도록 균형 있게 전략을 짜는 것도 중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대통령 탄핵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중”

### 기재부, 아세안+3 회의

한국은 최근 개최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전 세계적 불확실성 속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 측은 또 대통령 파면 전후로도 국정 운영이 안정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점을 각국에 설명했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8~9일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3(한·중·일)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 우리 측은 최지영 기재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참석했다.

최 관리관은 글로벌 불확실성 하에서 역내 경제·금융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최근 한국의 상황과 대응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정부는 대통령 탄핵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새 대통령 선거까지 남은 두 달의 기간 동안 미국 관세부과 영향 점검 및 피해업종 지원, ‘필수 추경’ 편성 추진 등 어려운 대내외 여건에 대응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각국 참석자들은 5월에 열릴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 준비를 위해 역내 경제동향 및 정책방향, 금융협력 주요 의제를 논의했다. 또 최근 경제 상황 관련해 아세안+3 역내 거시경제조사기구(AMRO)와 아시아개발은행(ADB), 국제통화기금(IMF)이 경제 동향·전망과 리스크 요인 등에 대해 발표했다.

역내 경제는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지만 미국 신정부 관세정책, 글로벌 금융 긴축 등으로 하방 리스크도 높은 상황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각국의 재정·통화 정책 여력 활용, 수출 다변화 노력, 미래에 대비한 디지털 전환 추진 등을 제언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기업 승계부담 완화 ‘상속세-자본이득세’ 결합 제안

### 대한상의 “주식 처분시점에 세금부과 기업이 계속운영 가능하도록 해야”

최근 국회에서 중산층 부담 완화를 위한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경제계가 기업승계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제안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일 ‘기업 지속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방식 제안’을 통해 “기업 승계와 관련된 주식 등을 상속하는 경우에는 승

계취득 시점이 아닌 향후 매각 시점에 세금을 부과하는 자본이득세를 일부 도입해 ‘부의 재분배’와 ‘기업의 계속성’을 함께 달성할 수 있는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결합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높은 최고세율(50%)과 최대주주 할증평가(20%)로 인해 전세계에서 기업 승계가 가장 어려운 나라로 꼽힌다. 세부담이 많다 보니 기업의 계속성이 단절되고 투자·성장 약화, 주주환원 제약 등 경제 역동성이 저하되

고 있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상속세가 없는 국가는 14개국에 달하고, OECD 회원국 중 상속세를 자본이득세로 전환한 국가는 캐나다, 호주, 스웨덴, 뉴질랜드 등이 있다.

대한상의는 기업승계 부담 개선을 위한 상속세-자본이득세 하이브리드 형태로 3가지 방식을 제안했다.

첫째 피상속인 사망 시점에 최고 30%의 상속세를 적용하고 이후 주식 매각 시점에 20%의 자본이득세를 주

가로 부과하는 방식이다.

둘째 부동산, 채권 등 경영권과 무관한 재산에는 현행 상속세(최고세율 50%)를 적용하고, 경영권과 관련된 주식에는 자본이득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셋째 전체 상속재산 중 기준금액 이하 분은 현행 상속세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자본이득세를 적용하는 방식이다.

대한상의 강석구 조사본부장은 “국민 일자리의 창출과 국가 경제의 지속적인 번영을 위해 소수 기업에 국한된 현행 기업상속공제 제도를 넘어 전반적인 기업 승계제도를 마련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오락가락 관세에 주가·환율 널뛰기… 기업 '환 리스크' 비상

불확실성 커지며 시장 혼란 가중  
美-中 갈등 여전… 원화약세 전망  
'한국 경제,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 "중국에 대한 미국의 관세를 즉시 125%로 인상한다"며 "세계 시장에 중국이 보인 존심의 부족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어떤 방식이나 형식으로 미국에 대해 보복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나는 90일간의 유예와 이 기간에는 10%의(기본) 상호관세를 승인했다"고 했다. 이날 0시 1분 상호관세가 발효된지 약 13시간 만이다.

'자고 나면 바뀐다'는 말이니을 정도로 오락가락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변덕'이 더 심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로 인해 시장의 불안감이 증폭될 것이란 우려도 커지고 있다.

외환과 증시는 연일 둘러코스터를 타고 있다. 특히, 외환시장의 불확실성은 가뜩이나 기초체력이 약해진 한국 경제에 또 다른 충격을 가할 전망이다. 환율이 크게 출렁이면서 수출기업들이 '환 리스크'에 빠지게 될 위험성도 커졌다.



스피가 전 거래일(2293.70)보다 151.36포인트(6.6%) 상승한 2445.06에 마감한 10일 오후 서울 종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643.39)보다 38.4포인트(5.97%) 오른 681.79,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84.1원)보다 27.7원 내린 1456.4원에 주간 거래를 마감했다.

/뉴스  
동조하는 원화 값은 급등락하고 있다. 환율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다. 원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출 증대 효과도 예전 같지 않다.

국제무역통상연구원에 따르면 국제 유가와 원·달러 환율이 10% 상승할 경우 수출단가는 0.04% 오르고, 수출물량은 0.01% 감소해 수출금액은 0.03% 증가에 그친다. 반면 수입금액은 3.6% 증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반면 환율 상승은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금의 이탈을 불러온다. 투자한 돈을 달러로 바꿔 환수해야 하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고환율은 치명적이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환율 변동성이 높아지면 한국경제는 휙들리고 출렁일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미국과 중국 간 '통화전쟁' 발발은 두 나라와 밀접한 경제협력 관계를 맺고 있는 한국 입장에서 피하고 싶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게다가 위안화 가치의 급등락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증시에서 외국인 투자자금의 대거 이탈을 몰고 올 수 있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초 위안화 절하가 잇따르자 외국인 자금이 탈과 그에 따른 증시 폭락 현상이 일어났다.

/신은 기자 godhe@metroseoul.co.kr

## ◆ 트럼프 '관세 변덕'은 '금융시장 변덕'

10일 국내 금융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90일 관세 유예' 발언으로 둘러코스터를 탔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가치는 오후 3시30분 기준 전 거래일 종가(달러당 1484.1원)보다 27.7원 오른(환율은 하락) 1456.4원에 거래를 마쳤다. 하루만에 시장 상황이 급변한 텏이다. 전날 원화 환율은 한때 1487원대를 찍었다. 관세전쟁 공포에 글로벌 금융 위기 때였던 2009년 3월 이후 16년 만의 최고치(원화 가치 하락)를 기록한 것이다. 그렇다고 트럼프발 관세 공포가 사라

진 건 아니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연구원은 "원화와 같이 글로벌 교역 규모와 통화 가치 간에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가진 통화는 관세 전쟁에 따른 교역 환경 악화 전망에 가치 절하가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특히 미·중 무역 갈등은 원화 가치 절하 가능성을 높인다"고 짚었다. 오재영 KB증권 연구원 역시 "미·중 관세전쟁 리스크가 지속되는 한, 원화는 달러 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상대적 약세를 지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국내 증시도 둘러코스터 장세다. 코스피는 이날 전 거래일 151.36포인트

(6.60%) 급등한 2445.06에 마감했다. 이날 유가증권과 코스닥시장에서는 프로그램 매수호가 일시 효력정지(사이드카)가 발생됐다. 코스피는 전날 2293.70까지 밀려났었다. 하루 만에 낙폭을 회복한 셈이다.

◆ 미·중 환율전쟁, '환율' 청구서 날아올까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은 '환 리스크' 확산에 주목한다. 미·중 '관세전쟁'이 '환율전쟁'으로 확전하면서 불똥이 한국 외환시장으로 옮겨붙을 가능성 이 커서다. 미국 관세에 대응해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떨어뜨리자, 위안화에

## 비트코인, 하루만에 8.5% '껑충'… 금값 3000달러 상회

〈온스당〉

트럼프, 채권시장 불안감 언급  
지정학적 불확실성 등 투심 영향

'위험자산'인 가상자산과 '안전자산'으로 꼽히는 금 가격이 급등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6개국에 적용 예정이었던 '상호관세'를 90일간 유예하면서 위험자산 투자 심리가 회복된 가운데, 트럼프가 중국에 100% 이상의 관세를 부과하는 초강경 조치를 병행하면서 지정학적 불확실성을 고조시킨 영향으로 금값도 함께 상승했다.

10일 가상자산 시황중계사이트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정오께 1BTC당 약 8만2200달러(1억1980만원)에 거래

됐다. 비트코인이 장중 7만5000달러까지 내려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최저가를 기록했던 전일과 비교해 8.5% 급등했다.

주요 알트코인(비트코인 이외의 가상자산)의 상승률은 10%를 웃돌았다. 이날 시가총액 2위인 이더리움(ETH)은 전일 대비 14.2% 상승했고, 시총 3위인 리플(XRP)도 13.6% 상승했다. 시총 4위인 바이낸스(BNB)와 5위인 솔라나(SOL)는 각각 6%와 12.4% 상승했다.

트럼프가 상호관세 조치를 유예하면서 채권 시장의 불안감을 언급한 것 또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데 일조했다.

가상자산 가격이 급등한 가운데 대표적 '안전자산'인 금 가격도 강세다.

지난 9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금 선물 종가는 1트로이온스(31.1g, 약 8.1돈)당 3079.40달러를 기록했다. 전일보다 89.20달러(3.0%) 급등했다. 상호관세 도입을 앞두고 유동성 확보·차익 시현을 이유로 온스당 3000달러 아래로 내렸던 금값이 다시 3000달러를 넘겼다.

금 가격 상승은 트럼프가 상호관세의 유예를 선언한 가운데, 중국에는 예외적으로 1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하는 등 초강경 대응에 나서면서 지정학적 긴장감이 확산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날 트럼프는 "중국이 가까운 시일 내 미국과 다른 국가를 상대로 바가지를 써우는 일이 더는 지속 가능하지도, 용납될 수도 없다

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란다"라고 주장했다.

글로벌 금융회사 B2PRIME의 알렉스 체파예프 수석전략책임자는 "현재의 높은 지정학적 긴장감과 그에 따른 경제 불안정은 금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다가올 경제 침체에 대한 논의도 금에 대한 수요를 키우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TD증권의 바트 멜렉 상품 전략책임자는 "금은 궁극적으로 불안정성에 대한 해지 수단으로 여겨진다"면서 "관세가 문제가 되고 있고, 인플레이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는 (금의) 높은 수익률로 이어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

» 1면 '한숨돌린 관세…'서 계속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한덕수 권한대행 “모든 협상 진전 보일 것”

한 대행은 간밤에 단행된 유예 조치와 관련해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더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무역에 의존해서 우리의 성장과 발전을 많이 기대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 여러 장관의 각별한 노력을, 또 의지를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는 반대로) 75개국 이상이 무역과 무역장벽, 관세, 환율조작, 비금전적 관세에 대한 해결책을 협상하기 위해 (미국) 상무부, 재무부, 무역대표부 등에 연락을 취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국가들은 나의 강력한 제안에 따라 미국에 대해 어떤 식으로도 보복하지 않았다는 점에 근거해, 90일간 유예하고 이 기간에 상호관세를 10%로 상당히 낮춰 즉시 발효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국제유가 급락… 정유업체, 업황 위기대응 '구슬땀'

에쓰오일·SK이노 대규모 투자 단행  
HD현대오일뱅크 재무안정성 확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발글로벌 관세전쟁 소용돌이 속에서 국제유가 급락하고 원화가치가 속락하는 가운데 국내 정유업체들의 위기대응 행보가 엇갈리고 있다. 수요 사이클을 고려해 유가 하락기를 오히려 투자 확대의 기회로 삼는 곳이 있는 한편 일부 기업은 재무 안정성 확보에 집중하는 등 셈법이 각각이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일 기준 브

렌트유는 배럴당 61.88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특히 중국 정부가 10일부터 미국산 제품에 84%의 보복관세를 부과한다고 발표한 후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58.40달러까지 하락했다. 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 사태와 미·중 갈등국면 이후 처음으로 60달러선이 붕괴된 것이다. 여기에 고환율 기조까지 맞물려 정유 업계의 불확실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업황 불확실성이 커진 상황에서 정유사들은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응 전략을 펼치고 있다.

먼저 에쓰오일은 국내 석화 업계 역

사상 최대 규모인 9조 2580억원을 투자하는 사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사한프로젝트가 본격 가동되면 에쓰오일은 에틸렌 180만톤, 프로필렌 77만톤, 부타디엔 20만톤, 벤젠 28만톤 등의 기초유분을 생산하게 된다.

SK이노베이션은 울산콤플렉스 내 자가발전 설비를 구축하고 LNG를 직접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를 통해 전력 비용을 줄이고 지난해 합병한 SK이노베이션 E&S와의 시너지를 기대하고 있다.

반면 HD현대오일뱅크는 과감한 투

자보다는 재무 안전성 확보에 무게를 두는 분위기다. 지난 2020년부터 2022년 말까지 중질유 분해 설비인 HPC에 4조 7000억원을 투입하며 차입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 올해는 대규모 투자 이후 재무구조를 안정화하는 데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업계 관계자는 "유가는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는 만큼 정유 수요와 공급도 주기적으로 조정될 수밖에 없다"면서 "현재 국제유가 하락으로 인해 재고 평가손실 측면에서 정유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향후 수요 회복과 함께 유가 및 정제마진이 반등할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볼 수 있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hyeon@

# “반도체·車·IT 산업 지원, 리스크 대응… 90일간 협상 총력”

정부, 주요산업 보호·경쟁력 확보  
美, 중국에 125% 고율 관세 부과  
대중국·제3국 수출 타격 불가피

반도체, 수출 애로해소 긴급 대응  
車, 미국 시장서 경쟁력 유지 목표  
IT, 기술 혁신·협력 강화 방안논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을 제외한 모든 무역상대국에 부과하기로 했던 상호관세를 석달 가량 유예하기로 전격 발표하면서 정부는 일단 한숨을 돌린 모습이다.

다만, 미국이 125%의 고율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기로 하면서 우리나라와 공급망 연결고리가 깊은 대중국 수출과 제3국 수출에는 타격이 예상된다.

특히, 트럼프의 오락가락 관세 부과 발언에 불확실성이 커졌다고 보고 국내 업계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미 협상에 총력 대응하는 한편, 국내 업계 생태계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0일 미국의 상호관세 90일 유예와 관련 “무역에 의존해 성장과 발전을 기대하고 있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앞으로 90일 동안 모든 협상에 진전을 보여서 관세의 부담으로부터 벗어나도록 더욱 더 노력해야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 대행은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미국 상호관세 25%가 90일 동안 유예되고, 기본적으로 부과되는 10%만 부과하는 것으로 (미국에서) 결정됐다”면서 이같이 밝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통상 리스크 대응을 위한 반도체 업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혔다.

한 권한대행은 특히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로 꼽히는 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근거는) 우리나라 관세 수준, 세제, 세금 수준, 비관세 장벽 등이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것들이 개선이 되면 우리 국민께 도움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규제가 완화되면 외국기업뿐 아니라 우리나라 기업에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 협의를 위해 방미 중인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의 상호관세 유예에 따라 협상 여지가 생겼다고 평가했다.

정 본부장은 9일(미국 현지시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금번 유예 조치는 미국 측과 관세 협상을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칠 영향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여지가 확보됐다는 점에

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다만 “미국이 중국에 125% 관세를 부과함에 따라 한국 기업의 대중국 수출이나 제3국 수출이 타격을 입을 수 있다”며 “여전히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신속한 대미 협의 등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 본부장은 8일~9일(미국 현지시간)까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윌리엄 키밋 상무부 선임고문(국제무역 차관 내정자), 제프리 캐슬러 상무부 산업안보국 차관 등 미국 정부 주요인사와 면담을 통해 주요 통상현안을 협의했다.

정 본부장은 그리어 USTR 대표를 만나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우리측 우려를 전달하고, 한국에 대한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했다고 산업부는 전했다. 또 키밋 국제무역 차관 내정자는 관

세조치를 포함한 미국 무역정책 관련 논의를, 케슬러 차관과는 안정적인 글로벌 공급망 구축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정 본부장은 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대통령간 통화(8일)를 통해 형성된 우호적 모멘텀을 기반으로 미국 관세조치에 대한 협상을 위한 큰 틀이 마련됐다”며 “금번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미국 관세조치를 포함한 주요 통상현안에 대한 미국과의 협의를 지속해 우리 업계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트럼프발 무역전쟁의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중장기적 관점에서 업계가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이와 관련해 이날 오전 서울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종합 반도체 기업, 팹리스 기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관세 영향을 점검하고 업계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트럼프 정부가 품목별 관세 도입을 예정하고 있는 만큼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다. 또 상호관세에 따른 IT 제품 수요 위축도 반도체 수출 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다만, 반도체 업계는 미국 내 생산에 한계가 있고 HBM 등 고부가 제품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높은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단기적으로 관세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통상리스크에 대응해 수출애로에 긴급대응하는 한편, 투자

인센티브 강화, 생태계 강화 등을 중심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만간 수립해 발표할 계획이다.

우선, 기업이 당면한 수출 애로 해소를 위해 코트라 '관세 대응 119', 관세대응 바우처 등을 통해 관세·원산지 등 컨설팅을 지원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소재·부품에 대한 비용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지난 2월 용인 1호 팹 착공을 시작으로 반도체 클러스터의 성공적인 조성을 위해 전력·폐수 등 기반시설에 대한 정부 지원한도 상향, 송전망·지중화 비용분담 등 추가 재정지원을 추진하는 등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기반시설 지원과 규제개선에도 속도를 높인다.

관세전쟁 등 공급망 불안 속에서 반도체 생태계 전반의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조치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첨단 반도체 양산연계형 미니팹 기반구축을 위한 '트리니티 팹' 운영법인을 상반기 중 설립해 팹 구축에 본격 착수하고, 첨단산업 특화단지 전용 대규모 연구개발 사업을 기획·추진하는 한편, 첨단산업 기술혁신융자 등 사업화 투자도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안덕근 장관은 “우리가 직면한 통상·공급망 리스크는 민관이 온 힘을 합쳐 대응해야 한다”며 “정부가 각급에서 긴밀한 대미 협의를 지속 전개해나가는 한편, 관세 전쟁은 기업 유치를 둘러싼 투자 전쟁이기도 한 만큼 국가적 역량을 총결집해 반도체 지원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한은, 경기불황 속 금리인하 고심… 가계부채 증가 등 ‘ 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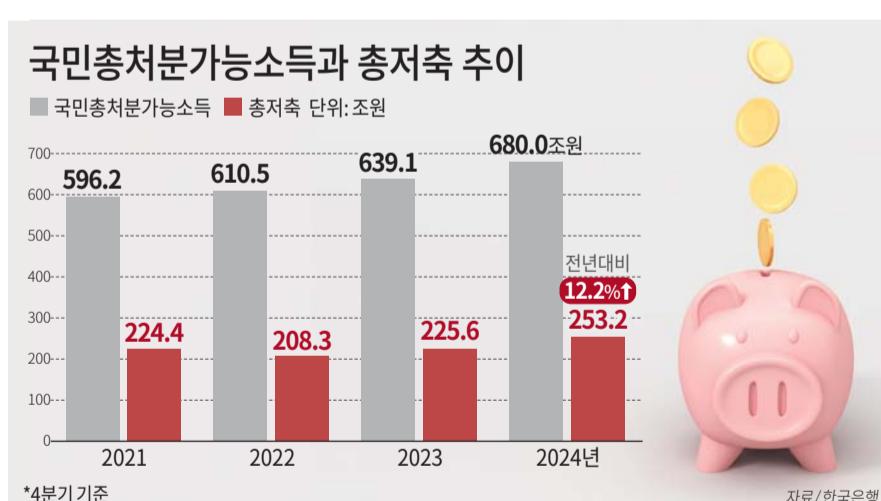
17일 금통위 통화정책방향회의 개최  
가계부채 2248조 GDP比 비율 92.1%

“경기불황은 한 국가의 생산능력이 아니라 단순히 유효수요의 부족에 있을 수 있다. 현금을 모으는 일에만 사람들의 신경이 집중되면서 실제 재화 소비가 현저히 감소하는 것이다. 한 국가의 근본적인 강점, 약점과 별개로 사람들의 심리에 따라 경기불황이 일어났을 때에는 더 많은 쿠폰(현금)을 발행하는 것으로 해결할 수 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

경기불황이 지속되면서 한국은행의 금리인하 속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내수(소비+투자) 회복과 미국 관세로 인한 수출 부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달 금리를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금리를 내릴 경우 1480원대를 웃도는 환율을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낮아진 금리에 부동산 시장으로 가계부채가 쏠릴 가능성도 높아 오는 17일 통화정책방향 결정회의를 앞두고 한은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 ◆ 저축의 역설 경기불황

10일 한은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 정부를 포함한 우리나라의 총 저축액은 253조2364억



원으로 집계됐다. 1년 전(225조6785억 원)과 비교해 12.2% 증가했다. 2023년 전년 대비 8.3% 증가하고, 2022년에는 7.15% 감소한 것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이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도 지난해 말 기준 680조631억원으로 늘었다. 국민총처분가능소득은 국민들이 소비나 저축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총소득을 말한다. 국민들이 경기악화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저축을 늘리고 소비를 줄이고 있다는 설명이다.

### ◆ 美 관세정책에… 韓 성장을 0%대 전망

시장에서는 한은이 이달 17일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출

등 유동성이 많아지면 소비 심리가 완화돼 내수 회복이 빨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관세정책으로 둔화될 수출에도 대비할 수 있다. 앞서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철강, 자동차 등에 대한 품목별 관세를 25%로 부과하고, 그 외 상호관세는 유예기간을 두고 90일간 10%를 부과했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이 94%는 수출이 차지한다. 특히 우리나라 총 수출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8.7%로 철강 자동차 부문이 절반 이상이다. 이 외에 다른 국가에서도 보복 관세 등으로 파장이 확산되면 수출 부진이 악화돼 성장률은 더 떨어질 수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은 관세로 미칠 파장을 고려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1.5%로 전망했다. JP모건, 영국 캐피털이코노미스(CE) 등 주요 해외투자은행(IB)는 각각 0.7%, 0.9%로 0%대 성장률을 예측했다.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김진욱 씨티 이코노미스트는 “5월 금통위 회의 날짜(5월 29일)가 조기대선 사전투표기간과 겹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상반기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면 4월을 더 선호할 것”이라며 “4월·7월·10월에 각각 0.25%포인트(p)씩 인하할 것”이라고 말했다.

### ◆ 1480원대 환율, 금리인하 “쉽지 않아”

한은은 금리인하 시기를 두고 고심이 깊어질 전망이다.

우선 금리인하로 내수가 회복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다. 지난해 말 기준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총 2248조 2050억원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1%다. 금리를 낮춰 유동성이 많아진다고 하더라도, 빚 갚는 데 쓰여 내수에 미치는 영향은 낮

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금리를 인하할 경우 부동산을 중심으로 자산이 쏠릴 가능성도 적잖다. 앞서 지난 2월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로 인해 서울시 아파트 매매 거래는 1월 3만2000호에서 2월 6만호로 2배 이상 증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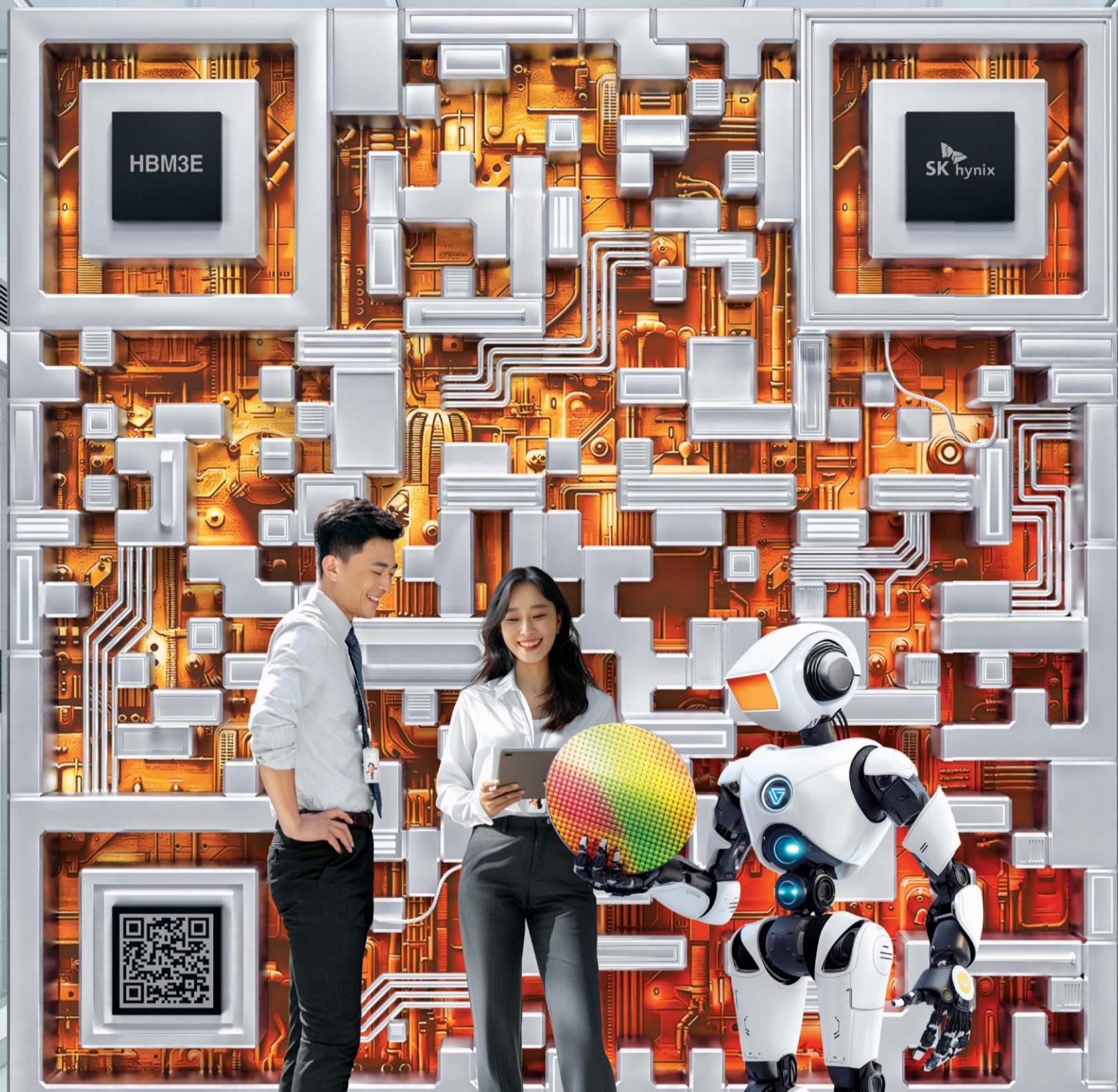
ING는 “추경 지연, 미국 관세의 부정적 영향,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성장전망이 불투명하다”며 “미국 관세가 한국경제에 예상보다 큰 하방 영향을 미칠 경우 금리인하 기조가 강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끝없이 치솟는 환율도 문제다. 서울 외국환중개에 이날 원·달러 환율은 오전 9시 기준 1482.90원에 출발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90일간 관세정책을 유예하면서 1450원대로 낮아졌지만, 관세정책이 현실화되고 우리나라의 금리인하가 이뤄지면 원화 가치는 더 하락해 환율을 높일 가능성이 크다. 위험회피 성향이 강한 외국인 투자자의 자금이 빠져나가고, 수입품의 가격이 오르면서 물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조용구 신영증권 연구원은 “환율이 1480원 연고점까지 간 상황에서 환율변동성과 가계부채 등을 고려하면 4월 금통위가 금리를 인하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4월 동결·만장일치 가능성도 보고 있다”고 했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의 걸음이 길이 되도록



위의 QR코드를 찍어보세요  
SK하이닉스가 만드는 미래 AI 세상이 펼쳐집니다

# AI와 미래를 잇는 코드 SK하이닉스로부터

미래 AI 인프라의 핵심, 글로벌 No.1 AI 메모리 기업

We Do Technology | **SK hynix**

# 이재명, '비호감도 해소·국가 지도자급 리더 부상' 과제

## 제21대 대선출마 공식 선언

20대 대선 이후 사법리스크 시달려 비명계 주자, 네거티브 공세 전망 지지층 확장해 혼란·갈등 잠재워야  
'잘사니즘' 기반 중도보수층 공략 국가위기 극복 수단으로 AI 꽉아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가운데, 이 전 대표는 당내 경선을 거치며 '인물' 리스크에 맞서 비호감도를 해소하고 지지층을 중도 보수층까지 확장해 국가 지도자급 리더로 부상해야 한다는 과제가 가장 시급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 전 대표는 윤 전 대통령에게 0.73%포인트 차로 패배한 지난 20대 대선에서 시종일관 대장동·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등 각종 사법리스크에 시달리며 보수 진영에서 '부패 정치인' 취급을 받았다. 당내 경선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계 주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등 네거티브 공세에 나설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잘 방어하지 못하면 중도 확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정치권에선 이 전 대표가 지지층을 확장해 50% 이상의 득표율로 조기 대선에서 승리해야 추후 사회적 혼란과



10일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대통령 선거 출마 선언 영상을 시청하고 있다.

/뉴스  
복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계속했다"며 "극복의 수단은 AI 대전환 시대에서의 AI 산업의 육성, 반도체 산업 육성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왔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바라는 응답이 과반에 육박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지난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48%,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은 37%를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는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2%,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12%, 홍준표 대구시장 7%, 오세훈 서울시장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각 5% 순이었다. 태도 유보나 모름·무응답은 27%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는 국내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24.9%(총 4019명과 통화해 그 중 1001명 응답 완료),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박태홍 기자 pth7285@metroseoul.co.kr

갈등을 잠재울 수 있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치러진 5번의 대선에서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후보는 18대 대선의 박근혜 새누리당(현 국민의힘) 후보 밖에 없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치러진 19대 대선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과반 득표율을 하지 못했다. 이 대표가 사회적 혼란과 갈등의 원인을 '양극화'로 꼽은 만큼, 중도의 마음을 흔들어 과반 이상의 득표율을 받아야 국가 지도자급 리더십을 갖출 수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경선 과정에선 이 전 대표가 독주할 것이라는 관측이 자배적인 가운데, 본선에선 '먹사니즘'과 '잘사니즘'

을 기반으로 한 'K-이니셔티브'를 기조로 중도 보수의 마음을 흔들 공약을 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이 과정에서 민주당의 지금껏 지켜왔던 가치와 상충하는 공약들이 나올 수 있어 이 대표 측 입장에선 '운영의 묘'를 찾기 위해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대표는 출마 선언 영상에서 "잘사니즘"이라고 하면 좀 더 가치 지향적이고 좀 정신적이고 고통 없는 삶을 넘어선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생을 살리는 데 색깔이 무슨 의미인가. 정치라고 하는 것은 현장"이라며 "현장에서 국민들의 삶을

놓고 실제로 그 삶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게 빨간색이나 파란색이나 아니면 어떤 방법이 정책이 누구의 생각에서 시작된 것인가 그건 특별한 의미가 없다"라며 "어떤 게 더 유용하고 어떤 게 더 필요하냐 이게 최고의 기준이 돼야 된다"고 부연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평가받는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10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일관되게 이 대표에게 국가적 위기 상황을 극복하려면 국민들을 통합시켜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국민과 소통하는 자세를 가져야 하고, 소통과 통합의 바탕 위에서 민생과 경제 위기를 극

## 한동훈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민주당' 이길 것"

### 제21대 대선출마 기자회견

배신자 낙인에 보수진영 지지 '우려'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 개헌 추진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등도 제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도 대권 레이스에 가세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중앙 분수대 인근에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출마 기자회견을 갖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와 맞서 싸워 이길 후보는 자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 전 대표는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당 대표 시절 윤석열 전 대통령과 '건강한 당정관계'를 두고 각을 세워왔는데, 윤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배신자'라는 낙인이 찍혀 보수 진영의 고른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한 전 대표는 출마 기자회견에서 "현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10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하고 있다.

령은 22대 대선에 출마하지 않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 전 대표는 주요 국정 구상으로 ▲ 미래성장 2개년 계획 입안 ▲ 미래전략 부신설 ▲ AI 3대 강국·초격차 5대 산업 분야 육성 ▲ 5대 메가폴리스 구축 ▲ 근로소득세 인하 ▲ 경제 나토(NATO) 창설 등을 제시했다.

한편, 반도체 전문가인 개혁신당의 양향자 전 의원은 이날 대선 출마를 위해 국민의힘에 입당했다. 삼성전자 최초 고졸 출신 임원인 양 전 의원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양 전 의원은 "보수정당을 경제, 첨단산업, 미래에 관한 신보수정당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고 싶다"며 "과학기술 힘으로 뉴 보수의 길을 함께 가는 데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퇴임 연설을 하고 대선 준비를 본격화했다. 김태흠 충남지사, 김기현 전 원내 대표,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은 대선 경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박태홍 기자

법재판소가 지적한 것처럼, 30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 법안 처리를 남발한 이재명 민주당의 책임도 대단히 크다"면서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이제 남은 것은 이재명(전) 대표"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가 형사법정에서 심판받기 전에 우리 국민은 그걸 기다리지 않고

한 전 대표는 "지금 우리 앞에 놓인 것은 단순한 선거가 아니라 전쟁"이라며 "우리가 평화롭게 누려온 일상의 삶을 보호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이다. 서서 죽을 각오로 싸워 우리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켜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나라의 운명도 저버릴 수 있는 위험한 정치인과, 그를 맹신하는 극단적 포퓰리스트들로부터, 우리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한 전 대표는 4년 중임제·양원제 도입을 위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또한 22대 대선을 23 대 총선과 동시에 실시하고 21대 대통

## 국민의힘 "1차 경선서 4인, 2차 경선서 2인 선출"

대선후보 경선 일정·방식 확정  
1차, 일반 국민 여론조사 100%  
2차, 당심 50%·민심 50% 반영

국민의힘이 10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방식을 확정했다. 1차 예비경선(컷오프)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2차에서는 본경선에 오를 최종 후보 2명을 압축하기 위해 당



심·민심 각 50%를 반영하기로 했다. 결선은 양자 구도로 치르게 되는데,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올 경우 양자 결선을 하지 않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비상 대책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경

선안을 의결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사진)은 비대위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후보자 선출방식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인을 선출한다"며 "2차 경선에서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2인을 선출한다"고 말했다.

이어 "3차 경선은 선거인단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로 최종 1인을

선출한다"며 "단, 4인 경선에서 한 후보가 50%를 넘으면 2인 경선을 하지 않는 다"고 설명했다.

이 사무총장은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를 한 것은 오픈프라이머리라든지 민심 반영 비율을 높여야 한다는 요청들이 많이 있어서, 민심 눈높이에 맞는 후보들이 4인 경선으로 갈 수 있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4인 경선과 2인 경선에서는 선거인단 투표, 국민 여론조사 50%를 했는데, 당원과 민심을 고루 반영하

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고 부연했다.

선거인단 현장 투표는 실시하지 않으며, 권역별 합동연설회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최하지 않는다.

아울러 당원 선거인단을 확대하기로 했다. 책임당원뿐 아니라 최근 1년 내 1회 이상 당비를 납부한 당원도 투표할 수 있게 됐다.

역선택 방지 조항도 기존대로 모든 경선 조사에서 적용한다.

한편 국민의힘 선관위는 오는 11일 2차 회의를 열 예정이다. /서예진 기자 syj@

함께 성장하며  
행복을 나누는 금융



## 하나금융그룹 100호 어린이집 완공

# 하나금융그룹의 진심 어린 마음으로 아이들의 웃음과 희망을 지킵니다

단 한 명의 아이를 위해서라도  
행복한 보육환경을 만들어야 한다는 진심은

하나금융그룹이 6년간 쉼 없이  
달려올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100개의 어린이집을  
세우는데 그치지 않고

소외 없는 틈새 돌봄으로  
보육 사각지대를 채우는데 집중하며

하나금융그룹은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행복한 세상에 진심을 다하겠습니다



100호 봉화군 석포하나어린이집

꿈을 담는 100호 어린이집의 완공으로  
7,519명 어린이 돌봄 가능

누구 하나 소외 없이, 평등한 보육을 약속하는 어린이집  
장애인 대상 18개소 / 농어촌 지역 30개소 건립

100호 어린이집으로 이루는 상생  
1,510명 일자리 창출

하나금융그룹

| 하나금융지주 | 하나은행 | 하나증권 | 하나카드 | 하나캐피탈 | 하나생명 | 하나손해보험 | 하나저축은행 | 하나자산신탁 |  
| 하나자산운용 |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 하나에프앤아이 | 하나벤처스 | 하나펀드서비스 | 하나금융티아이 | 핀크 |

# 비만 혁신 치료제 '위고비'… 보험 혜택은 갈 길 멀었다

美 트럼프, 메디케어 등재 철회  
국내에서도 비만치료제 보장 안돼  
고가약값 환자 그대로 감당해야  
의료적 접근으로 정책지원 필수

비만 치료제 '위고비(Wegovy)'가 전 세계적으로 폭발적 관심을 받는 가운데 미국에서 공보험 등재 추진이 전격 철회됐다. 국내에서도 "비만을 질병으로 보고 보험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아직은 약값을 환자가 온전히 떠안어야 하는 실정이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비만 치료제 위고비를 연방 정부의 메디케어(노년층 의료보험)와 메디케이드(저소득층 의료보조)에 포함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전 바이든 전 대통령은 "월 1000달러(약 146만원)에 달하는 비만치료제 비용을 정부가 일부라도 지원해 더 많은 환자가 약물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지만 트럼프 행정부가 이를 공식 철회했다.

미국메디케어·메디케이드서비스센



Chat GPT가 생성한 위고비 이미지.

터(CMS) 역시 지난 4일 "비만 치료제에 대한 보험 범위를 확대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로버트 F. 케네디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비만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약보다 건강한 식생활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강조해 의료 재정 부담과 약물 남용에 대한 우려가 작용했다는 평가다.

그럼에도 위고비를 비롯한 'GLP-1 계열' 비만치료제는 이미 시장에서 폭발적 반응을 얻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해 10월 출시된 위고비는 보름 만에 1만1368건의 처방을 기록했고 11월에는 1만 6990건으로 경쟁 약물인 삭센다를 넘어서었다. 올해 1월에는 2만 2051건으로 두 배 가까이 성장했다.

다만 비만 치료제는 보험 혜택 사각지대에 있다. 국내에서는 아직 위고비와 삭센다 등의 비만치료제가 건강보험에 적용되지 않는다. 실손보험 역시 대부분 면책으로 규정하고 있다. 1세대부터 4세대 실손보험에 이르기까지 비만을 '보상하지 않는 손해' 범주에 포함해 의료비 부담을 전액 환자에게 돌리고 구조다.

게다가 위고비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았으나 국민건강보험 약제급여목록에도 등재되지 않아 고가의 약값을 환자 본인이 그대로 감당해야 한다. 아울러 출시를 앞둔 5세대 실손보험에서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세대까지 약관을 보면 비만 E66코드가 아예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며 "4세대 실손보험은 비만치료제 급여에 한해 부채(보장가능)이나 보장을 받기 위해선 약제급여목록로 등재되어 있어야 하지만 비만약은 등재되어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4세대와 마찬가지로 5세대도 비만 치료제를 보장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민영보험업계에서도 소수 상품이 예외적으로 비만치료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가입 문턱이 높다. 삼성화재는 '비만 동반 주요 대사질환 비급여 GLP-1 치료비 특약'을 판매 중이나 고혈압 등 대사질환 진단을 받은 사람이며 BMI(체질량지수)  $30\text{kg}/\text{m}^2$  이상일 때만 가입이 가능하다.

일각에서는 비만을 단순 미용 이유가 아닌 만성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비만 치료가 고비용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 현 상황에서는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이 떨어지고 그로 인해 치료 효과가 제한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치료비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적 접근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민선 비만학회 이사장은 "비만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의료적 접근이 필요한 질환으로 치료 효과를 높이기 위해 정책적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급여화 확대, 의료진 교육 강화,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으로 보다 체계적인 비만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주형 기자 gh471@metroseoul.co.kr

카드 News

한 걸음 두 걸음 모아,  
아동들의 소원을  
선물합니다.

\* KB국민카드

## KB국민카드 위시드림 캠페인 성료 2주 새 목표 걸음 달성

KB국민카드는 '위시드림(WE:SH DREAM)' 캠페인을 마무리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지난 202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ESG 활동이다. 임직원들이 한 달 동안 목표 기부 걸음 수 1억보를 달성하면 아동들의 소원 선물 비용을 지원한다. 2주 만에 목표 걸음 수를 초과했다. 총 1억 5852만보를 달성했다. 걸음을 통해 기부하는 사회공헌 활동인 만큼 탄소 배출량 저감에도 기여했다는 설명이다.

기부금은 취약 계층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한다. 사연을 공모받아 선정된 아동 555명이 속한 전국 50개 사회복지 기관에 전달되며 내달 어린이날 맞이 선물 비용으로 후원할 예정이다.

## 신한카드 챗GPT 구독행사 등 캐시백 제공 이벤트

신한카드는 디지털 구독 생활을 위한 다양한 행사를 진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30일까지 행사에 응모하고, 쏠트래블 체크카드로 챗GPT를 구독한 선착순 1만 명에게 3000원을 캐시백한다. 애플 앱스토어 혹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인앱 결제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한다. 5월까지 ▲유튜브프리미엄 ▲쿠팡와우 ▲넷플릭스 ▲웨이브 ▲멜론 멤버십 등을 신한 신용카드로 결제한 고객에게는 총 1만 5000원을 돌려준다. 최근 6개월 내 해당 서비스를 신한카드로 결제한 이력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 롯데카드 디지로카앱 '발견'서 골프반띵 행사 진행

롯데카드는 디지로카앱 '발견' 탭 골프카테고리에서 '골프반띵' 행사를 실시한다.

연말까지 모든 롯데카드로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등에서 결제하면 최대 10만 포인트를 증정한다. 땅콩 내 골프 카테고리에서 상품을 결제한 다음, 결제일로부터 3일 내 이벤트 페이지의 '반띵' 버튼을 눌러 참여할 수 있다.

디지로카앱 발견 탭 골프카테고리는 맞춤형 콘텐츠와 혜택, 상품 등을 한 번에 제공한다. 골프 라운딩 탑과 추천 골프용품, 골프 쇼핑몰 할인 쿠폰 등의 정보를 제공한다. /김정산 기자 kimsan119@

# 포스코이앤씨, 유엔스튜디오와 '용산 정비창' 특화설계

獨 벤츠박물관 등 다수 실적 보유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 적용  
글로벌 중심 랜드마크 완성 목표

용산정비창 전면 1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에 뛰어든 포스코이앤씨는 세계적인 건축설계사 유엔스튜디오와 협업해 '맞춤형 특화 디자인'을 선보이겠다고 10일 밝혔다.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박물관, 두바이 미래 교통 허브, 싱가포르 복합업무단지 등 상징성 높은 프로젝트에 참여한 유엔스튜디오는 기술적 완성도와 디자인 혁신성을 동시에 인정받고 있다.

국내에서는 압구정 갤러리아 백화점을 시작으로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 등 굵직한 사업에 참여하는 등 다수의 설



용산 정비창전면 제1구역 조합 원안 설계 조감도. /포스코이앤씨

계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한남4구역에 시공사로 선정된 삼성 물산과 협업한 바 있으며 압구정3구역 등 국내 도시정비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포스코이앤씨는 송도국제업무지구, 해운대 엘시티, 여의도 파크원, 판교 제2테크노밸리원 등의 복합개발 프

로젝트를 성공시켜 온 경험을 바탕으로 이 지역만을 위한 맞춤형 설계와 사람을 위한 공간 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외관패널과 문주 및 내장재에는 내식성이 우수한 포스코의 프리미엄 철강재인 '포스맥(PosMAC)'을 활용해 고급스러움을 더했다. 각종 구조체 및 가시설에는 포스코 강재(Pos-H) 등을 적용해 튼튼하고 안전하게 공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포스코이앤씨 관계자는 "기존의 틀에서 탈피한 독창적인 디자인으로 용산 정비창 전면 제1구역을 위한 설계를 준비하고 있다"며 "포스코이앤씨와 유엔스튜디오의 혁신적 설계 콜라보로 글로벌 중심의 랜드마크를 완성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전지원 기자 jjw13@

하나은행  
美 글로벌파이낸스  
韓 최우수 은행상

하나은행은 9일 미국의 글로벌 금융·경제 전문지 '글로벌파이낸스'로부터 '2025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하나은행은 통산 9회째이자 연속 5회 '대한민국 최우수 은행상'을 수상했다. 또한, 24회 연속 '대한민국 최우수 외국인 은행'과 통산 24회째 '대한민국 최우수 무역금융 은행'으로 선정됐다.

하나은행은 ▲인공지능(AI) 기반 디지털 금융 혁신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장기적 안정성에서 우수한 성과를 평가받았다. /나유리 기자 yul115@

## 우리은행, 외국인 관광객 맞춤형 금융 서비스 제공

원더라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  
2년간 WOKA 플랫폼 연계 서비스

우리은행은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맞춤형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외국인 관광객 전용 플랫폼 'WOKA'를 운영하는 원더라운드와 전략적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원더라운드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매장 위치, 상품 정보, 프로모션 등 여행에 필요한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하고, 국내 기맹점에서의 결제 및 ATM 출금이 가능한 선불카드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WOKA'를 운영 중이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향후



방운선 우리은행 외환사업부장(왼쪽)과 마오칭 원더라운드 대표이사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우리은행  
2년간 WOKA 플랫폼과 연계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특화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한다. 구체적으로는 ▲환율 우대

환전 ▲원화 출금 ▲선불카드 충전 등 금융 기능을 하나의 앱으로 제공한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력을 통해 외국인관광객들이 ATM 기반 출금 서비스 및 선불카드를 활용한 오프라인 결제 기능을 통해 국내 체류 동안의 여행 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 시장에서 외국인 고객을 위한 맞춤형 혜택은 중요한 경쟁력"이라며 "WOKA 와의 협업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의 금융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안승진 기자 asj@

# “푸조 308 스마트 HEV, 48V 배터리로 순수 전기주행”

## 스텔란티스코리아

변속기에 전기 모터 결합  
프랑스 문화·기술 담아내  
방실 사장 “피겨스타 차준환 닮아”

“동급 경쟁 모델이 잘 훈련된 군인 같은 느낌이 강하지만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피겨스타 차준환과 닮았습니다”

방실 스텔란티스코리아 사장은 9일 개최된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테크 아카데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선보인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 모델을 소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차세대 피겨스타 차준환 선수의 움직임처럼 예술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하면서도 스피드한 움직임의 에너지 넘치는 모습을 비교한 것으로 보인다.

방 대표가 극찬한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93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유럽 해치백 시장의 강자 ‘308’ 모델에 ‘스마트 하이브리드(HEV)’ 시스템을



스텔란티스코리아 방실 사장이 9일 ‘푸조 스마트 하이브리드 테크 아카데미’에서 하이브리드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스텔란티스코리아

적용한 차량이다. 푸조에서 정의하는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통상적으로 마일드 하이브리드로 분류되는 48V(볼트) 배터리를 장착하고도 순수 전기 주행이 가능한 기술이다. 순수 전기로만 도심 주행의 조건에서 전체 주행 시간의 50% 이상을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똑똑한 하이브리드 솔루션이다.

푸조의 스마트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1.2L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과 새롭게 조화를 이룬 e-DCS6 기어박스내에 전기모터, 컨버터, 트랜스미션을 통합 설계한 구조적 장점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전기 모터는 최고 출력 15.6kWh, 최대 토크 55Nm 힘을 갖췄으며 구동 배터리는 0.89kWh의 에너지를 가진 수냉식 48V 리튬이온 배터리를 사용했다. 여기에 최고 출력 100kW, 최대 토크 230Nm의 힘을 가진 직렬 3기통 1.2L 퓨어테크 가솔린 엔진을 조합했다.

스마트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약 1100kg의 견인력을 갖췄으며 낮은 RP M(크랭크축 회전수)에서 반응성이 뛰어

나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가솔린 내연기관 엔진(AT8 STT) 대비 22g 줄였다.

강동훈 스텔란티스코리아 기술 이사는 “기존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엔진 보조에 그쳤다면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변속기에 전기모터를 결합해 순수 전기모드 주행이 가능하다”면서 “도심 주행시 최대 30km 이하 서행 구간에서 주행 시간의 최대 50%까지 전기 모드 주행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터리는 운전석 아래 배치해 여유로운 실내 좌석과 트렁크 공간을 확보했다”고 덧붙였다.

디자인 부분에서는 푸조 특유의 프랑스 디자인과 문화, 기술을 감각적으로 해석한 전형적인 예술을 담아냈다. 또 푸조는 하이브리드 시장 공략을 위해 가격 경쟁력 확보에도 공을 들였다. 국내 소형 SUV의 경우 내연기관과 하이브리드 간 평균 1400만원 가량 가격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푸조 308 스마트 하이브리드는 내연기관 모델과 가격 차이를 310만원 수준으로 낮췄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삼성전자

### 에어컨 판매량 50% ↑

삼성전자가 올해 1분기 가정용 에어컨 시장에서 역대급 실적을 올렸다. 1월부터 3월까지 에어컨 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다.

10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올해는 스탠드형 에어컨의 판매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3월 기준 스탠드형 모델은 전년 동기 대비 약 80% 더 팔렸다. 벽걸이형과 창문형도 고루 수요가 늘며 전 제품군에서 호조를 보였다.

이러한 판매 호조의 배경에는 인공지능(AI) 기반 신제품 출시에 있다. 삼성전자는 지난 3월 ‘비스포크 AI 무풍 콤보 갤러리’를 비롯한 총 4종의 2025년형 AI 에어컨을 선보였다. 신제품은 AI가 자동으로 실내 환경을 조절하는 ‘AI 쾌적’, 최대 30% 에너지 절감을 돋는 ‘AI 절약모드’ 등 다양한 기능을 탑재했다.

/이혜민 기자 hyem@

##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 민관 합산 1조 이상 투자

### 산자부 안덕근 장관 등 350명 참석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 구축 예정

정부가 오는 2030년 휴머노이드 최강국을 목표로 40개에 달하는 국내 최고의 기업들과 대학교들 등 국내 최고 수준 기관들로 ‘드림팀’을 꾸려 적극적인 지원과 투자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안덕근 산업부장관과 유흥립 서울대 총장 등 350여명이 참석했다.

이번 연합에는 국내 주요 로봇 제조사와 부품 기업, AI 연구진, 수요 기업 등 약 40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정부는 이를 중심으로 오는 2030년까지 R&D, 펀드 조성, M&A 등 민관 합산 1조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테슬라와 피규어AI, 아마존, MS, 엔비디아 등 미국 기업뿐 아니라 유니트리, 유비테크 등 중국 기업들까지 대규모 투자와 정부 지원을 바탕으로 시장 주도권 확보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으나 투자 규모와 전문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글로벌 빅테크를 따라잡기 위해 휴머노이드 생태계의 역량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흥립 서울대학교 총장 및 휴머노이드 참여 기업 대표들이 10일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열린 K-휴머노이드 연합 출범식에서 K-휴머노이드 연합 MOU 체결식을 하고 있다.

/뉴스

결집이 필요하다고 보고 산·학·연 역량을 모으는 K-휴머노이드 연합을 조직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각자의 전문 분야에 따라 나뉘어 주요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먼저 서울대 AI 연구소, KAIST, 고려대 등 AI 전문그룹은 2028년까지 로봇의 두뇌에 해당하는 ‘로봇 AI’를 개발한다. 2028년까지 ‘로봇 AI 파운데이션 모델’을 구축할 예정이다. 로봇 제조기업은 실제 기기를 통해 데이터를 제공하고, 연구진은 이를 학습시켜 정밀한 AI를 완성하는 방식이다.

로봇 제조사, 부품사 기업은 휴머노이드 하드웨어(HW)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한다. 정교한 물체 조작이 가능한 힘·토크 센서, 손 감각을 구현하는 촉각 센서, 가벼우면서 유연한 액추에이터 등 핵심부품도 개발한다.

글로벌 최고 사양을 가진 휴머노이드 HW 개발을 위해 R&D에 집중 투자 한다. 연합은 무게 60kg 이하, 관절 자유도 50 이상, 하중 20kg 이상, 이동 속도 2.5% 이상 등 글로벌 최고 수준의 사양을 목표로 한다. 로봇 부품사들은 고감도 센서, 경량 액추에이터, 고정밀 감속기 등 핵심 부품을 함께 개발한다.

산업부는 연 2000억 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해 기술개발을 지원하며, 실제 산

업환경을 모사한 실증 인프라도 마련할 계획이다.

AI 반도체, 모빌리티용 배터리 등 개발을 위해 리밸리온·DEEPX(반도체), 배터리 3사(SK온·LG엔솔·삼성SDI) 등 분야별 전문기업이 참여해 연합 내 로봇기업과 공동 기술개발 등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게 된다. 특히 산업부는 온디바이스용 AI 반도체 개발을 위한 대규모 R&D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업부는 금번 연합 출범을 계기로 로봇 뿐 아니라, 인공지능, AI반도체, 배터리, AI 컴퓨팅 등 AI 관련 유망 산업도 본격 육성할 계획이다.

/이승용 기자 lsy2665@

## LG화학, ‘차이나플라스 2025’ 참가

### 지속가능존 등 6개 전시공간 구성

LG화학이 친환경·고부가 소재로 글로벌 고객 사로잡기에 나선다.

LG화학은 오는 15일부터 4일간 중국 심천에서 열리는 아시아 최대 플라스틱·고무 전시회 ‘차이나플라스 2025’에 참가한다고 10일 밝혔다.

LG화학은 ‘화학의 힘으로 가치를 높이다’를 테마로 총 6개의 전시 공간을 구성해 친환경 기술력과 프리미엄 제품 포트폴리오를 선보인다.

‘지속가능 허브 존’에서는 고객의 제품에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드롭인 솔루션을 선보인다.

‘페킹 존’에는 LG화학의 독자기술

로 개발된 ‘유니커블’ 소재가 적용된 단일소재 포장필름이 전시된다.

‘모빌리티 존’에는 고광택, 내열성·내후성을 갖춘 고기능성 플라스틱(ASA)로 만든 자동차용 라디에이터 그릴과 차량 인포테인먼트 패널 등에 사용되는 고강성·전자파 차폐 성능의 디스플레이용 앤지니어링 소재를 선보인다.

‘에너지 존’에서는 전기차 충전 케이블용 초고중합도 PVC(폴리염화비닐) 등의 고부가 제품을 전시해 글로벌

시장과 고객 공략을 가속화한다.

‘리빙 존’에는 고급 가전용 내외장재인 저광·무광 ABS(고부가 합성수지)와 초고중합도 PVC가 적용된 고기능성 친환경 인조가죽 등을 전시한다.

‘메디컬 존’에는 뛰어난 내열성과 생체적 합성으로 얼굴에 직접 달아도 안전한 투명 PC(폴리카보네이트)가 적용된 헤어케어 LED 마스크 등 의료·뷰티 분야의 프리미엄 제품을 전시한다.

/차현정 기자 hyeon@

## LG이노텍

### 동반성장 상생데이 성료

LG이노텍이 100여개 협력사와 함께 차별화된 고객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생 협력 강화’에 나섰다.

LG이노텍은 지난 9일 인천 송도 오크우드 프리미어에서 ‘2025 동반성장 상생데이’를 열고, 주요 협력사와 ‘2025년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동반성장 상생데이는 LG이노텍과 협력사가 공정 거래 및 동반성장을 위해 상호 간의 협력을 다지는 행사로 2010년부터 매년 진행해 왔다.

협약에 따라 LG이노텍은 금융,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사 경쟁력 강화를 위한 ‘동반성장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총 1430억 원 규모의 ‘동반성장펀드’를 조성해 협력사에 시중은행보다 낮은 금리로 자금을 지원한다.

/이혜민 기자

# 북미 스타트업과 기술동맹 확보 “모빌리티 패러다임 주도 본격화”

현대모비스 ‘모빌리티 데이’ 개최  
디트로이트서 비전, 투자현황 소개  
현지 우수기업 등 협력·수주 확대

현대모비스가 북미 현지에서 스타트업 대상 투자 설명회를 열고 미래 모빌리티 기술 동맹 확보에 나섰다.

현대모비스는 9일(현지시간) 자동차 산업 분고장인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제4회 모비스 모빌리티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북미 현지 고객사와 스타트업계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대모비스는 사업 비전과 투자 현황 등을 알렸다.

현대모비스가 올해 개최 장소를 디트로이트로 결정한 것은 최근 글로벌 수주 상당수가 북미 고객사에 집중돼 있기 때문이다. 고객사가 위치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과 투자·협력을 확대하고 우수 기술을 공동 개발하면, 향후 고객사에 제품을 프로모션하기 용이한 점도 반영했다.

디트로이트는 스타트업의 허브로 부상하고 있다. 자동차 제조업을 토대로 생산과 품질관리,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등으로 무장한 모빌리티 신생 기업들이 다수 포진해 있다. 지역적 특성에 기반해 현대모비스가 초청한 현지 유망 스타트업들도 발표자로 나서 로보틱스와 클린테크 등을 중심으로 모빌리티 트렌드에 대해 심도 있게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임직원이 발표하는 모습. /현대모비스

논의했다.

현대모비스는 ‘모비스 in 글로벌’을 주제로 소프트웨어 중심 자동차(SDV)와 전동화, 전장 혁신 기술 등을 소개했다. 사업 비전과 함께 오픈 이노베이션 성과와 투자 전략 등을 발표했다. 현대모비스 북미연구소 임직원들이 직접 발표해 생동감과 전문성을 더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모비스벤처스 실리콘밸리(MVSV) 투자 담당 미첼 윤은 “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을 주도할 혁신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우수 글로벌 스타트업 발굴과 전략적 투자가 중요해지고 있다”며 “올해는 기술과 사업성 검토 등 사업 실증 지원을 확대하고 시장 선점을 위한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현대모비스가 2018년 실리콘밸리에 오픈 이노베이션 거점을 둔 이래 지난해까지 글로벌 스타트업에 투자한 금액은 총 2000억원이 넘는다. 지난해 미국 반도체 회사 엘리베이션 마이크로시스템즈에 1500만달러 신규 투자를 감행했으며, 2020년 영국 앤비전스에 지분 투자해 증강현실 기반 헤드업 디스플레이(AR-HUD) 기술 협업을 진행하고 있다. 자율주행용 고성능 이미지 레이더 개발사 젠다, AI 기반 반도체형 라이다업체 라이트아이씨, 소프트웨어 플랫폼 전문 기업 소나투스 등 미래 모빌리티 핵심 기술 분야 유망 기업들과도 사업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 400억 규모 ‘K뷰티 펀드’로 中企 밀어준다

중기부, 400여社 참여 펀드 출범식  
코스맥스·콜마·모태펀드 자금 투입  
롯장관 “오픈이노베이션 본격화 기대”

민간과 정부가 힘을 모은 ‘K-뷰티 펀드’가 최초로 탄생했다. 올해 400억 원 규모로 조성해 뷰티 브랜드 기업, 뷰티 테크, 스타트업 등 대한민국 화장품 분야 벤처체인 전반에 중점 투자한다. 코스맥스, 콜마, 모태펀드가 자금을 투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400여개 뷰티 중소·벤처기업이 참석한 가운데 ‘K-뷰티 펀드 출범식 및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국내 화장품은 세계 최고 수준의 제조·생산 역량과 강력한 글로벌 마케팅으로 지난해 중소기업 화장품 수출 규모 68억 달러를 달성, 중소기업 수출 단일 품목 최초로 60억 달러를 돌파했다”며 “세계적인 기술력을 자랑하는 국내 화장품 제조사 코스맥스와 한국콜마가 직접 펀드 조성에 나선 만큼 K-뷰티 펀드가 제조사와 뷰티 중소·벤처기업 간 오픈이노베이션을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방안’을 통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가운데)이 10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열린 ‘K-뷰티 펀드 출범식’에서 신현규 코스맥스 부사장(왼쪽),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오른쪽)와 출범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해 중소기업 수출 1위 품목인 화장품의 글로벌 최고 수준 도약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로 민관 합동 K-뷰티 펀드 조성을 발표한 바 있다.

최현규 한국콜마 대표는 “이번 펀드는 K-뷰티의 세계화를 더욱 견고히 다지는 중요한 디딤돌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면서 “혁신적인 제품과 브랜드의 글로벌 시장 진출과 확장을 지원해 K-뷰티 생태계의 질적 성장을 물론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문서 코스맥스 부사장은 “K-뷰티 펀드를 통해 고객사와 마케팅·유통사·원부자재 회사 등 뷰티 벤처체인 전반에 투자하겠다”며 “글로벌 1위 ODM 기업으로서 고객사와 파트너사와의 전략적 협업을 통해 우리나라가 화장품 수출 1위를 달성하는 데 밀려들어야 될

것”이라고 전했다.

출범식에 이어 올리브영, 한국콜마, 화해 등 업계 전문가와 함께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방안을 논의하는 글로벌 인사이트 컨퍼런스가 열렸다. 최근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조치로 불확실성이 확대된 시장 상황을 고려해 관세 대응방안을 포함한 ‘K-뷰티 수출가이드’ 세션도 진행했다.

오 장관은 “어려운 환경속에서도 K-뷰티 중소벤처기업의 글로벌 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K-뷰티 펀드 조성과 함께 민관 협업 지원 프로그램 확대 운영, 생산자금을 지원하는 K-뷰티론 신설, 국제박람회 개최 및 K-뷰티 면세점 입점 지원 확대 등 현장이 요구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승호 기자 bada@

## 특허 싸움 끝… 글로벌 수주 경쟁 돌입

### LS전선·대한전선

싱가포르, 남아공서 각각 수주 낭보

LS전선과 대한전선이 5년 넘게 이어진 특허 분쟁에 최근 마침표를 찍었다. 특히 다툼은 끝났지만 같은 날 해외에서 대형 전력망 프로젝트 수주 소식을 각각 발표하는 등 ‘법정 밖 기싸움’이 이어지는 분위기다.

10일 업계에 따르면 LS전선은 싱가포르 전력청으로부터 약 2000억원 규모의 초고압 전력 케이블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이번 사업은 인도네시아에서 태양광으로 생산된 전력을 싱가포르로 송전하는 대규모 에너지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LS전선은 변전소까지 연결되는 저중 송전 구간에 230kV(킬로볼트)급 초고압 케이블을 공급하며 케이블의 제조부터 시공, 설치까지 포함하는 던키 방식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할 예정이다.

LS전선 관계자는 “이번 수주는 글로벌 경쟁이 치열한 시장에서 LS전선의

기술력과 신뢰도를 인정받은 결과”라며 “지중 케이블 공급을 계기로 향후 해저 케이블 부문까지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대한전선은 남아프리카공화국 생산 법인인 엠텍이 약 520억원 규모의 전력망 공급 프로젝트를 수주했다. 현지 국영 전력공사인 에스콤이 발주한 것으로, 중저압(MV·LV) 케이블과 가공선 등을 공급하는 사업이다.

이번 프로젝트는 남아공의 전력 인프라를 안정화하기 위한 대규모 사업의 일환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한전선 관계자는 “남아공은 높은 수준의 금융 및 산업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는 아프리카 최대 경제 대국으로 최근 전력 및 인프라 투자가 활발해지고 있다”며 “엠텍은 현지 생산 기반과 다년간의 수주 실적, 현지 네트워크를 통해 아프리카 전역을 아우르는 전력 인프라 공급 거점으로 도약할 것”이라고 밝혔다.

/차현정 기자 hyeon@

##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 허용

정부, ‘中企·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

정부가 건설기계 가운데 덤프트럭에만 허용하던 옥외광고를 레미콘트럭, 지게차 등 9종까지 늘린다.

E-9 비자 외국인 근로자의 일자리 변경을 수도권에서 비수도권, 비수도권에서 비수도권으로 권역간 이동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기존엔 최초로 고용허가를 받은 사업장이 있는 권역 안에서만 이동이 가능했다.

카페 등 휴게음식점의 상·하 칸막이, 즉 복층구조인 높이 기준도 현실에 맞애 한다.

바다부터 천장까지 상·하 층 높이를 1.7m 이하로 제한하다보니 공간을 비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높았기 때문이다.

10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옴부즈만에 따르면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 청사에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소기업·소상

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기 옴부즈만 등을 통해 주요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제조·건설업 ▲생활·전문서비스업 ▲수출입·조달 ▲창업·인증 ▲농·어업 분야 등에서 발굴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이 포함돼 있다.

제조·건설업의 경우 외국인근로자 배정시 내국인 채용실적을 반영하는 고용허가 기준 개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 공사기술자 자격취득 허용이, 수출입·조달에선 불가피한 사유로 수출하지 못한 외국어표시 식품의 한글 스티커 표시를 허용해 국내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공인인증 사업장(HACCP, KS 등 12종)은 중소기업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현장심사를 면제하는 내용 등이 각각 포함돼 있다.

김승호 기자

## 중진공, 베트남서 SW인재 키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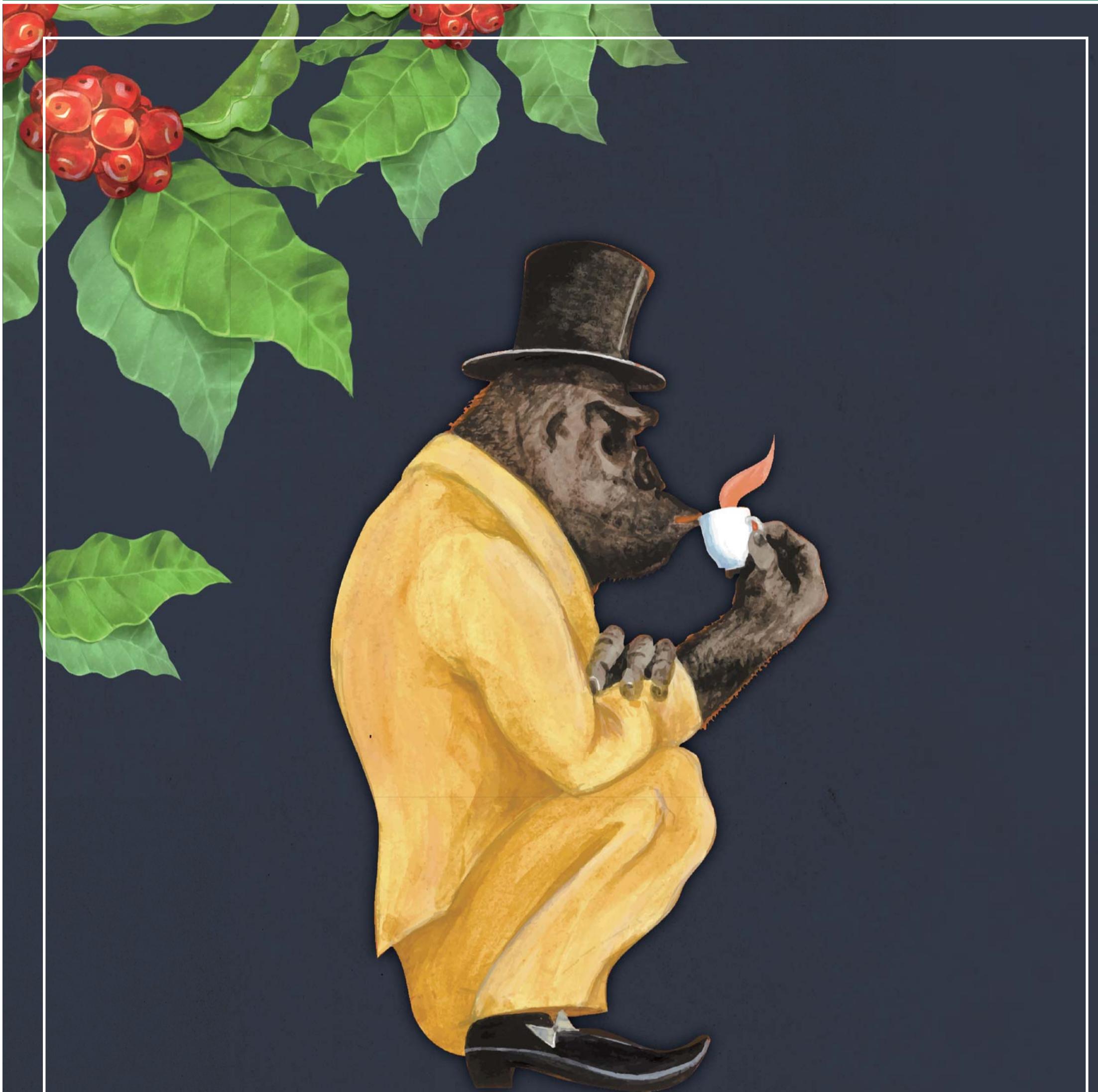
다낭 한·베 정보통신기술대와 협약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국내 스타트업들을 위해 베트남 소프트웨어(SW) 인력을 추가로 양성한다.

중진공은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10일 베트남 다낭에 위치한 한·베 정보통신기술(ICT) 대학교(VKU)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지난해 7월 중기부와 베트남 과학기술부가 체결한 스

타트업 생태계 발전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의 후속조치이다. 현지의 우수 소프트웨어(SW) 개발 인력을 양성해 한국 스타트업의 관련 인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두 기관은 ▲SW 실무연장 강화 교육 ▲한국 스타트업 취업

/김승호 기자



# GORILLA KAFFEE

170년 가업으로 이어 온 독일의 장인정신  
최상급 원두를 위한 최적의 로스팅

COFFEE IS PLEASURE. WE MAKE THE BEST OF IT. THERE IS NOTHING BETTER THAN SOMETHING GOOD.  
THAT'S WHY WE MAKE VERY GOOD COFFEE. ENJOYMENT WITHOUT FRILLS. OUR HOUSE BRAND GORILLA

# “보급형 AI로 예산·성능 균형… 추론특화 TPU로 효율 개선”

〈텐서처리장치〉

##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 2025

### 제미나이 2.5 플래시

GPT-4o 대비 2배 비용 효율

### 7세대 TPU ‘아이언우드’

트릴리움 대비 연산성능 최대 10배

삼성전자 AI 로봇에 제미나이 탑재

LG AI연구원, 엑사원 고도화 사례

카카오, 차세대 모델 프로젝트 발표



구글 클라우드 넥스트25에서 피티에 나선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가 참석자들에게 인사를 하고 있다.

이 2.5 플래시는 예산과 성능의 균형을 맞추는 데 최적화된 모델로, 추론의 정밀도를 사용자가 직접 제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토마스 쿠리안 구글 클라우드 CEO는 “제미나이 2.5 플래시를 자사의 AI 하이퍼컴퓨터 환경에서 구동하면 GPT-4o 대비 2배, 딥시크의 R1 대비 5배 이상의 비용 효율을 보일 것”이라며 경쟁 우위를 강조했다. 해당 모델은 현재 ‘버텍스 AI’와 제미나이 앱에서 미리보기 형태로 제공된다.

구글은 또, 생성형 AI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전용 인프라로 추론에 특화된 7세대 TPU ‘아이언우드’도 함께 공개했다. 아이언우드는 포드(Pod) 당 9000개 이상의 칩을 탑재해 총 42.5 억 에시플롭스(100경)의 연산능력을 제공하며, 이전 세대인 트릴리움 대비 전력 효율이 2배, 연산 성능은 최대 10배 이상 향상됐다. 또한 고대역폭 메모리(HBM) 용량도 직전 TPU 트릴리움 대비 6배 증설돼 데이터 처리 효율을 크게 개

선했다.

구글은 이날 행사에서 국내 기업들과의 협업 사례도 다수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상반기 출시 예정인 흄 AI 로봇 ‘볼리’에 구글의 제미나이 모델을 탑재해 고도화된 실시간 반응 기능을 구현할 예정이며, 자체 언어 모델과 결합해 사용자 맞춤형 AI 인터랙션을 강화할 계획이다.

LG AI연구원은 구글 클라우드의 AI 하이퍼컴퓨터 인프라를 기반으로 자사의 초거대언어모델(LLM) ‘엑사원(EXAONE)’ 고도화 사례를 소개했고, 카카오는 TPU와 GPU 환경에서 머신러닝 성능을 최적화해 대규모 차세대 모델을 구축한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피차이 CEO는 “구글은 최신 AI 기술을 제품과 플랫폼에 전방위적으로 적용해 나갈 것”이라며 “AI 하이퍼컴퓨터를 포함한 클라우드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으로 전 세계 기업의 혁신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 KT, 2030 직원 주도 ‘AX 가속화’ 이끈다

〈인공지능 전환〉

# 개미 “바닥치고 상승” vs 기관 “바닥 밑 지하” 엇갈린 투심

트럼프發 관세전쟁에 증시 급등락  
개인, 코스피 200지수 2배 추종  
KODEX 레버리지 ETF 사들여  
외국인·기관, 시장 하락에 베팅  
KODEX 200선물인버스2X 매수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주식 투자자 A씨)

“위험 관리가 필요한 시기다. 주식 비중을 줄이는 게 적절하다.”(외국계 투자 은행 B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쏜 ‘관세전쟁’이란 화살에 증시가 급등락하고 있다. 하지만 증시의 앞날을 바라보는 개인 투자자와 외국인(기관)의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개인들은 코스피가 2290선으로 급락하자 ‘지금이 바닥’이란 판단에 지수 상승에 베팅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들은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다. 시장 전문가들



ChatGPT로 생성한 국내 증시 변동성 이미지.

은 “안갯속 장세가 펼쳐질 것”이라며 신중한 시장 접근을 당부한다.

1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최근 일주 일간 개인투자자들은 코스피 200지수를 두 배로 추종하는 ‘KODEX 레버리지’ ETF를 6787억원 순매수했다. 코스닥 150지수를 두 배로 따라가는 ‘KODEX 코스닥 150 레버리지’ ETF도 2991억 원어치 매입했다. 이는 개인투자자들이

현재의 약세장을 저가 매수 기회로 보고 반등에 대비해 공격적으로 투자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반해 외국인과 기관은 시장 하락에 베팅하고 있다. 외국인과 기관은 최근 일주일 동안 코스피 200지수 하락 폭의 2배를 추종하는 ‘KODEX 200선물인버스2X’를 각각 89억원, 2716억원 규모를 순매수했다. ‘TIGER 200선물인버스2X’도 각각 104억원, 8억원 규모로 사들였다. 이외에도 기관들은 코스피 200 지수를 역으로 1배 추종하는 ETF인 ‘KODEX 인버스’도 393억원어치 매입했다. 이는 경기 침체 우려로 국내 증시가 추가로 하락할 가능성에 무게를 둔 것으로 보인다.

엇갈린 베팅에서 최후의 승자가 누가 될지는 안갯속이다.

시장에서는 외국인 팔자가 일시적인 분석이 있다. 트럼프발 충격이 2008년 금융위기와 같은 전 세계적인 시스템 위기로 발전하진 않을 것이란 전망

이다. 금융위기 이후 위험 자산 투자 규제가 강화돼 당시보다 자산 건전성이 좋다는 게 핵심 근거다. 금융만 보면 그럴 수 있다.

유승민 삼성증권 연구원은 “당분간 보수적 스탠스를 유지해야 한다”며 “최근 과도한 주식시장 하락으로 기술적 과매도 시그널이 일부 포착되고 있지만, 경험적으로 볼 때 의미 있는 바닥을 확인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근거는 있다.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데다, 트럼프의 상호유예 기간 이후 미국이 어떤 추가 조치를 취할지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실제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수출기업들의 실적 악화가 불가피하고 이는 결국 증시 전반의 하락과 변동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잘나가던 미국 경제도 흔들리고 있다. ‘펀드멘털은 좋다’와 같은 지지대가 없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는 뜻이다. JP모건체이스의

브루스 카스만 미국 수석 이코노미스트 도 투자자 노트에서 “올해 세계 경제 침체 확률이 40%에서 60%로 높아졌다”고 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를 1968년 이래 가계와 기업에 대한 최대 규모의 세금 인상이라고 표현하면서 “보복, 미국 기업의 심리 위축, 공급망 붕괴 등을 통해 이번 세금 인상의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고 했다.

롤러코스크 장세를 보이는 글로벌 주식시장과 외환시장이 이를 말해준다.

미국발 경기 침체와 그에 따른 금융 시장의 충격은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에는 더 치명적이다. 영국의 민간 연구 기관인 캐피털 이코노미스(CE)는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0%에서 0.9%로 내렸으며, 바클리(Barclays)는 1.6%에서 1.4%, HSBC는 1.7%에서 1.4%로 각각 하향 조정했다. S&P의 경우 한국의 금년도 경제 성장률을 2.0%에서 1.2%로 무려 0.8%포인트 낮추기도 했다.

/원관희 기자 wh@metroseoul.co.kr

## “상법개정안 재의결 지연, 헌법 위반” 민주당에 일침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 문제 논의해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자본시장의 주요 현안에 대해 강도 높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는 대기업 유상증자, 상법 개정안, MBK 검사 등 핵심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혔으며 특히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헌법 절차 위반”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10일 자산운용사 CEO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난 이 원장은 국회의 상법 개정안 재의결 지연에 대해 “거부권이 행사돼 국회로 돌아간 상법 개정안이 표결조차 되지 않는 것은 헌법 제53조의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을 위헌이라 비판하면서, 정작 헌법상 절차를 외면하는 것은 내로남불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에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간 불균형, 기업의 형사처벌 부담이라는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소수주주 보호를 원한다면 형사처벌 완화 문제에 대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일 서울 영등포구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금융감독원장-자산운용사 CEO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하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서도 정치권이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이슈가 된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대규모 유상증자와 관련해서는 증권신고서 심사 기준을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투자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가 충분히 담기지 않았다면 ‘횟수에 제한 없이 반복적으로 정정 요구하겠다’며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이 원장은 유상증자 자체에 대해선 “자본시장의 본질적 기능은 자금 조달”이라고 강조하며, 방산과 조선 등 국가 핵심 산업에 대한 과감한 투자가 필요

한 시점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과거 합병이나 물적분할 과정에서 주주 신뢰가 반복적으로 훼손된 점을 지적하며 “기업이 진정성 있는 소통으로 시장을 설득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한국의 소수주주는 대기업 의사결정에 깊은 불신을 갖고 있다”며, 한화가 보다 적극적인 주주 설득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자산운용업계와 관련해서는 이 원장은 ‘구조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최근 상장지수펀드(ETF)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대형 운용사 간 과열 경쟁에 대해 “외형 확대를 위한 보수 인하

경쟁이 과열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펀드 가격 산정(NAV)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투자자 신뢰를 근본부터 훼손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노이즈 마케팅에만 집중하고 본연의 책무를 등한시하는 운용사에 대해서는 상품 운용 및 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업계 대표들도 운용 역량 강화와 책임 성 제고 필요성에 공감하며,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제도 개선 논의에 협조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 원장은 사모펀드 운용사 MBK파트너스 관련 검사 상황도 공유했다. 그는 “검사·조사 절차는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지만, 이미 유의미한 사실관계가 확인됐다”며 “검찰 및 증권선물위원회와 협의해 이달 중 관련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가 요구한 사재 출연 계획과는 별개 사안이며, 검사 과정에서 드러난 내용에 따라 독립적으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며 “통상적인 증선위 안건 상정은 어려울 수 있으나, 신속히 처리할 수 있는 절차부터 이달 중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허정윤 기자 zelkova@

미래에셋운용

채권형펀드 총 수탁고  
1년새 12% ↑ 50조 돌파

미래에셋자산운용은 전체 채권형 펀드의 수탁고가 50조원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일 기준 미래에셋자산운용이 운용 중인 채권형 펀드(MMF, 채권혼합, 재간접형 등 포함)의 총 수탁고는 50조 2000억원이며, 1년새 12% 가량이 늘어 50조원을 돌파했다.

해외채권형 펀드는 국내 주요 연기금과 정부기관의 꾸준한 투자 확대를 통해 지난해 8월 총 수탁고 9조원을 돌파한 데 이어 최근 10조원을 넘어섰다.

미래에셋자산운용의 해외채권형 펀드는 선진국부터 신흥국의 국채, 회사채 등 다양한 상품 라인업을 통해 시장 국면에 따른 적합한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허정윤 기자

미래에셋증권

‘HKEX 어워즈’ 수상

미래에셋증권은 홍콩거래소(HKEX) 주관 ‘HKEX 어워즈’에서 국내 증권사로는 유일하게 수상했다고 10일 밝혔다.

미래에셋증권은 ‘Enterprise Data Package Data Vendor(엔터프라이즈 데이터 패키지 데이터 벤더)’ 부문에서, 홍콩 법인은 ‘Top Participating Dealer New ETP(톱 파티시페이팅 딜러 뉴 ETP)’ 부문에서 수상했다.

‘HKEX 어워즈’는 홍콩거래소가 아시아 금융 시장에서 뛰어난 성과와 기여를 낸 기관 및 기업에 수여하는 상이다.

미래에셋증권 측은 “글로벌 투자 인프라와 고객 편의성 제고 노력이 인정 받은 결과”라고 설명했다. 미래에셋증권은 2023년부터 국내 증권사 중 유일하게 홍콩과 중국 거래소의 실시간 시세를 무료 제공하는 등 고객 투자 환경을 개선했다.

/허정윤 기자

## 은행 NPL 14.5조… 비은행권 부실화 더 가팔라

삼정KPMG, NPL 시장 동향·전망

국내은행의 부실채권(NPL) 규모가 고금리와 경기둔화의 여파로 빠르게 불어나고 있다. 특히 기업여신 부문이 전체의 80%를 차지하면서 금융시스템 전반에 구조적 위험이 커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비은행금융권의 건전성 악화 속도는 은행권보다도 가파르며,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비율 모두 큰 폭으로 상승했다.

삼정KPMG가 10일 발표한 ‘NPL 시장 동향 및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3분기 말 기준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 규모는 14조 5000억원으로, 2022년 말(10조 1000억원) 대비 40% 이상 늘었다. 기업여신 부실채권은 11조 7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30% 급증했고, 가계여신도 13% 증가한 2조 6000억원으로 나타났다.

은행 연체율은 지난해 4분기 말 기준 0.44%로, 전년 동기(0.38%)보다 상승

했다. 인터넷전문은행(0.67%)과 특수 은행(0.61%)은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은 2022년 3분기 0.23%에서 2023년 같은 기간 0.35%로 상승했으며, 신규 NPL 발생 규모도 2조 3000억원에서 3조 원으로 확대됐다.

은행들은 자산 건전성 관리를 위해 NPL 매각을 늘리고 있다. 지난해 매각 규모는 8조 3000억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비은행권의 부실화는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2024년 3분기 기준 가계대출 연체율은 2.18%로, 기타대출이 2.73%로 전체 상승을 이끌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6.4%로 전년 대비 2.17%포인트 상승했다. 상호금융조합의 기업대출 연체율은 8.39%, 저축은행의 전체 대출 연체율은 8.8%에 달했다.

NPL 매각 시장은 NPL 전문사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2024년 기준 투자 건수의 98.7%, 투자 규모의 99.8%를 전문사가 차지했으며, 평균 매입률은 2023년 초 90%를 넘었지만 2024년 4분기에는 76.6%로 하락했다. /허정윤 기자

# AI도입, 제조업 비용 46% 절감 전망 매출증가·고숙련직종 인력수요 확대

고용정보원, '지역산업과 고용' 발간  
AI 활용 제조업 등 일자리 전환 분석  
車 부품 전환지도 등 연구결과 수록

AI(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 이란 전망이 나왔다.

10일 한국고용정보원이 한국지역고용학회와 공동으로 발간한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 이슈분석에 따르면, 고용정보원 김수현 박사는 전문가 인터뷰 등 조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인공지능 기술 발전이 제조업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심층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제조업 분야 전문가와 기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2024년 7월~9월까지 표적집단면접(FGI) 방식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국내 제조업체 비율은 2.7% (2022년 통계청 조사 기준)에서 31.6% (2023년 정보통신부 조사 기준)로 기관

별 조사 방식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 제조업 내 인공지능 기술 도입률이 평균 36%, 이용자 비중은 34%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으며, 종사자들은 도입률과 이용자 비중을 각각 35%, 44%로 비슷한 수준으로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제조업의 1인당 매출을 7년 뒤에는 최대 40%까지 증가시키고, 생산 비용은 46% 줄일 것으로 보았다. 다만, 비용 절감 효과에 대해 종사자들은 전문가 전망보다 낮은 26%로 예상했다.

기업 규모에 따른 인공지능 활용 경차도 두드러졌다. 대기업은 '확장·고도화 단계'로 진입 중이라고 판단한 반면, 10인 미만 소규모 기업은 대부분 '활용도 낮음' 수준에 머무른다고 보았다. 전문가와 종사자 모두 기업 규모에 따라 인공지능 활용 역량 차이가 크다고 평가했다.

인공지능 기술은 단순 생산직과 사무직 일자리 감소를 가져오지만, 기계·

로봇공학 기술자, 소프트웨어 전문가 등 고숙련 직종의 인력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이수 분석은 전망했다.

김 박사는 "중소제조업체의 기술 도입을 위한 지원과 고용 전환 정책이 시급하다"며 "AI 발전에 따른 일자리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전직 지원, 교육훈련 강화, 인력 양성 정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지역산업과 고용' 봄호는 이밖에도 '음식점 키오스크는 아르바이트 생을 대체할까? (박세정 박사)', '디스플레이 제조기업의 일자리 전환 실태분석(전주용 부연구원)' 등 첨단기술 도입이 산업 구조와 일자리 구조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집중적으로 다뤘다.

이외에도 지역사례와 고용동향을 중심으로 지역별 산업·일자리 전망 현황, 2024년 상반기 고용보험 DB를 기반으로 한 '자동차 부품 전환지도' 등 연구 결과를 수록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 중견기업 글로벌 진출 원스톱 지원 강화

KIAT·중견련·KOTRA·무보  
맞춤형 종합 지원 프로그램 제공

중견기업의 해외 신시장 진출과 수출 확대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견기업 지원 기관 4곳이 힘을 모은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지난 9일 오후 그랜드하얏트 서울에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중견기업연합회와 '중견기업 글로벌화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협약에 따라 4개 기관은 중견기업이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관별 서비스를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한다. 이를 위해 중견기업 전용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지원 서비스 정보를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중견기업이 해외 시장에 진출해 성공하려면 시장 분석부터 현지 수요를 반영한 신기술 개발, 후속 사업화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민병주 KIAT 원장을 비롯한 참석자들이 업무협약 체결식 기념촬영 사진을 찍고 있다. (왼쪽부터) 강경성 KOTRA 사장, 장영진 무역보험공사 사장, 민병주 KIAT 원장, 중견기업연합회 이호준 부회장.

연구개발, 수출 금융, 인력 등 다양한 지원책을 보유한 기관들이 협조 체계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병주 KIAT 원장은 "중견기업은 대한민국의 산업과 경제의 중심을 든든하게 떠받치는 존재들"이라며 "국내를 넘어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 중견기업들이 우수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필

요한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KIAT는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견기업과 중견기업 후보기업에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한편, 2021년 독일에 소재부품 협력센터를 개소하는 등 중견기업의 기술 경쟁력 향상과 이를 통한 해외 시장에 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세종=한용수 기자

## 한전KDN, 광주시와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조성 추진

'첨단 에너지ICT솔루션 적용' 협약

한전KDN은 지난 9일 광주광역시 청 비즈니스룸에서 광주광역시 등과 '광주지역 분산에너지 활성화와 특화 지역 조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정부가 추진하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이하 분산특구) 운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광주광역시 도시공사, 광주광역시 소재 에너지기업 등이 참여한다.

분산특구는 정부가 재생에너지, 연료전지 등 분산형 에너지원을 지역 단위에서 직접 생산하고 사용하는 것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특별구역이다. 분산특구 안에서는 분

산에너지 사업자가 발전·판매 사업을 동시에 할 수 있고 한국전력과 다른 요금을 도입하는 것도 부분적으로 허용된다.

참여기관들은 이날 협약을 통해 ▲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및 조성 ▲ 분산에너지 정책수립 및 실현 ▲ 분산

에너지 실증 및 신기술개발 ▲ 에너지 신산업 관련 기업육성 지원 등에 대해 협력하게 된다.

한전KDN은 광주광역시가 계획하고 있는 분산특구 모델의 핵심기술인 공공클라우드에 기반한 마이크로그리드 에너지종합관리시스템(MG-EMS), 가상발전소(VPP), 마이크로인버터 등 첨단 에너지ICT솔루션 지원으로 분산에너지 마켓플레이스 구현에 협력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 산불피해 농촌에 '맞춤형 봉사' 시작

농식품부, 경북 안동 등 피해복구 지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오는 12일부터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 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올해 봉사활동은 지난 3월 대형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 의성, 청송, 경남 산청 등지에서 시작된다.

활동에는 총 6만 2000명의 봉사자가 참여한다. 전국 1100여 개 마을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택 보수, 전기 수리, 건강검진 및 상담, 도배·장판 교체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는 12일 한국마이스터협회가 안동에서 산불 피해 가구를 대상으로 주택 보수 및 전기 수리를 시작한다. 4~5월에는 굿뉴스월드,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과 산청군을 찾아 기초건강검진, 건강 상담 및 심리 안정 상담을 제공한다. 또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 가구에 대한 도배 및 장판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산불피해를 입은 경북 안동 길안면의 한 농가.

다. 6월에는 칠곡군종합자원봉사센터가 청송군의 산불 피해 가구를 위한 주택 수리 및 도배·장판 교체를 진행할 계획이다.

박성우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산불 피해를 입은 농촌주민들에게 깊은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번 농촌 맞춤형 봉사활동이 주민들의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 온라인판매 '농축산물 원산지' 특별점검

농관원, 14일부터 25일까지 단속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온라인을 통해 거래되는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대해 특별 단속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14~25일 실시되는 이번 원산지 표시 점검은 네이버, 쿠팡, 지마켓, 11번가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과 통신판매업체가 대상이다. 단속에는 소비자 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 182명도 합류한다.

농관원의 주요 점검 대상은 농축산물과 가공식품 판매업체다. 원산지를 국내산이라고 써 놓으나 상세 페이지에는 외국산이라고 표시하거나, 별도 표시라고 언급했거나 실제는 구체적으로 명기하지 않은 경우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이는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사례들이라고 농관원은 설명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 커피숍 '일회용컵 회수·보상' 청주서 첫발

환경부, 내달부터 스타벅스서 시행

환경부가 10일 청주시 및 스타벅스와 '맞춤형 일회용컵 회수 및 보상'을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부터 환경부는 일회용컵 감량 및 재활용 촉진 정책의 전국적 확산을 목적으로, 민간기업·지자체 등과 협약을 맺어 수용성을 높인 맞춤형 제도 시행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협약식은 청주시 관내 스타벅스 매장 '청주분평 DT점'에서 열렸다. 일회용컵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배출하는 업종인 커피 전문점과 일회용컵 재활용 촉진 방안을 마련한 첫 번째 사례로 기록됐다.

주요 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사용하는

일회용컵은 매년 증가해 연간 21억 개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번 협약의 참여 기관들은 일회용컵의 재활용 촉진을 위해 올해 5월 중 청주시 스타벅스 전체 매장 28곳에서 일회용컵 회수·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플라스틱 재질의 일회용컵 회수를 위해 고객이 청주 시내 스타벅스 매장에서 일회용컵 5개를 반납하면 자체 포인트(에코별) 한 개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고객은 에코별 12개를 모을 경우 원하는 음료 1잔을 무료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업계가 함께 힘써야 한다"고 전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권력과 숭배,  
채정완 초대전’

An Invitational Exhibition by Chaejungwan

2025.4.3 Thu - 4.13 Sun *Gallery ○름*

주최 *Gallery ○름* 후원 ○름비 ARAMBI 동성제약 신안개발 · 갤러리아람 서울시 중구 동호로 315 신안빌딩 1층 T. 02.6743.3370 · 관람시간 11:00-19:00 \*월요일 휴관

# 서울시교육청, 고도영재 키운다 ‘초등영재 표준 교육과정’ 수립

영재교육기관 체계적 운영 지원 기관별 편차 줄이고, 연계성 높여 고도영재 선정 리스트·매뉴얼 개발 올해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 운영

서울시교육청이 공교육 내 영재교육의 체계적인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만들었다.

또한, 영재교육기관(영재교육원 및 영재학급)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 내용의 질을 높이기 위해 수·과융합, 수학, 과학, 융합정보 분야를 운영하는 영재교육기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초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영재 교육과정은 강사와 기관에 따라 다르게 운영돼 왔다. 기관별로 교육과정의 편차가 크고, 초·중·고 영재교육기관 간 교육 내용 연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시교육청은 전국 최초로 초등 영재교육기관 분야별 표준 교육과정을 수립해 표준화된 영재 교육과정 모델을 구축했다.



서울시교육청 초등 표준 영재 교육과정 수립 포스터 /서울시교육청

올해에는 ‘중등 영재 표준 교육과정’도 개발해 영재교육의 연계성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또한, AI 디지털 대전환 시대에 발맞춰 AI 분야 영재교육원도 신설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 맞는 미래형 인재를 양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시교육청은 고도영재를 선정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와 운영 매뉴얼도 전국 최초로 개발했다.

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함을 확인했다.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된 일부 바디페인팅 제품에서 카드뮴이 최대 3.6  $\mu\text{g/g}$  검출됐으나, 이는 ‘화장품 안전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5  $\mu\text{g/g}$  이하의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고 서울시는 연구원은 설명했다.

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중 국내 기준 초과 제품과 동일한 유형 중국내 유통 색조 립밤, 바디 페인팅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5종을 검

서울시교육청은 개발된 운영매뉴얼을 교육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사례를 발굴하고, 판별 지원·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영재교육지원센터와 함께 ‘고도영재키움 프로젝트’를 시범 운영해 영재 발굴의 기회를 넓힐 예정이다.

이러한 맞춤형 교육 기회를 통해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재능을 잘 살리고 새로운 꿈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교육부로부터 17개 시·도교육청 중 영재교육 선도교육청으로 지정됐으며, 잠재력 있는 인재 발굴 및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 사각지대의 발굴 및 지원 방안 탐색’ 정책 연구를 진행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영재 표준 교육과정을 통해 체계적인 교육기반을 마련하고, 고도영재 발굴 및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인공지능 기술과 양자 컴퓨팅 같은 최첨단 교육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현진 기자 lhh@metroseoul.co.kr

## 서울시, 올해 첫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

총 567가구… 저출생 대책 지원  
장기전세주택·보증금 지원형



서울시가 저출생 극복 일환으로 무주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공공임대주택 ‘미리내집’의 올해 첫 입주자 모집에 나선다. 총 567세대다.

서울시는 11일 공고를 내고 장기전세주택 367가구와 보증금 지원형 200 가구 등 총 567가구를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미리내집은 출산 또는 결혼을 계획 중인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인 주거와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서울시의 저출생 대책이다. 입주 이후 자녀 증가로 세대원 수가 증가한 가구는 입주 후 최장 20년까지 거주기간을 연장하고 시세보다 저렴하게 매수를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우선, ‘제4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으로 367가구 입주자를 모집한다. 24일과 25일 이틀간 신청 접수할 예정이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곳은 동대문구 이문동, 중랑구 중화동 등에 신규 아파트 단지 및 재공급 단지로 전용면적 41~84m<sup>2</sup>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전세금은 최저 2억 1700만원(중랑구 가현 월디움 면목 1차 48m<sup>2</sup>), 최고 9억 7500만원(서초구 래미안 원펜타스 59 m<sup>2</sup>)으로 공급된다.

제4차 입주자 모집 단지 중 이문아이파크자이(동대문구 이문동)는 전용면적 41m<sup>2</sup>, 59m<sup>2</sup>(총 212호)가 공급된다. 1호선 외대앞역과 신이문역 사이에 위치한 초역세권이다.

또 다른 단지인 중화 리버센 SK부동산(중랑구 중화동) 경우, 전용면적 41~84m<sup>2</sup>까지 다양한 입지와 면적으로 공급된다.

적 49m<sup>2</sup>, 59m<sup>2</sup>, 70m<sup>2</sup>, 84m<sup>2</sup>(총 11호)가 공급된다. 7호선 중화역에 가까이 위치해 교통이 편리한 데다, 인근 중랑천 수변공원 등을 누릴 수 있어 주거환경도 쾌적해 신혼부부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 ▲롯데캐슬 이스트풀(광진구 자양동) 57호 ▲올림픽파크포레온(강동구 둔촌동) 22호 ▲힐스테이트 e 편한세상 문정(송파구 문정동) 18호 ▲힐스테이트 관악센트씨엘(관악구 봉천동) 12호 등 15개 단지, 367호에 대해서도 일제히 입주자 모집이 이뤄진다.

미리내집 입주자 모집은 SH공사 누리집을 통해 확인, 신청할 수 있다. 혼인 신고한 날로부터 7년 이내 신혼부부 또는 공고일로부터 6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이면서 부부 모두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8일에는 보증금 지원형 미리내집 200호를 신규 모집한다. 전세형 장기안심주택과 연계한 유형이며, 장기안심주택 거주 중에 자녀 출산시 10년 거주 후 장기전세주택으로 우선 이주신청 기회를 제공한다. 내달 12일부터 14일까지 사흘간 신청 접수 예정이다. /이현진 기자

## 육사, 필기시험 없는 입시전형 신설

미래국방인재전형… 사관학교 ‘유일’ 학교생활기록부로 우수인재 선발

육군사관학교 입시에서 필기시험 없는 전형 생겼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2026학년도 육군사관학교 입시에 필기시험을 치르지 않는 미래국방인재전형이 신설됐다. 사관학교 중 1차에서 필기시험 없이 신입생을 선별하는 전형은 이 전형이 유일하다.

우선선발 전형 중 하나로, 1차 필기 시험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서류평가를 통해 우수 인재를 선별하는 방식이다. 사관학교 시험은 크게 특별전형을 포함한 우선선발과 종합선발로 나뉘는데, 모든 응시자는 1차 시험(필기시험-국어, 영어, 수학)을 응시해야 한다. 1차 시험 성적이 일정 배수 안에 드는 합격자에 한해 2차 시험(면접, 체력검정, 신체검사 등)에 응시할 수 있다.

육사 미래국방인재전형은 고등학교 학교장 추천(최대 3명)을 받아야 하며,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영재학교, 예술고, 일반·종합고의 전문계반, 외국 고등학교 등 학생부 성적 체계가 다른 학교 출신은 지원이 불가하다.

1차에서는 학생부(서류평가)로 합격 여부를 결정한다. 학업성취도(80%), 학업태도(10%), 진로역량(10%)을 평가한다. 서류평가이지만 일반대학의 학생부종합전형과 달리 정량평가방식으로 이뤄진다.

2차 시험에서는 면접의 비중이 80%로 높은 편이다.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는 점도 다른 전형들과 다르다. 수능최저학력 기준은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평균) 중 3개 합 8등급이다.

우연철 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소장은 “사관학교는 20~30 대 1 정도의 높은 경쟁률을 보이지만, 실질 경쟁률

과는 차이가 큰 편으로, 1차 시험에 합격하고도 2차 시험에는 응시하지 않거나, 타 대학과 중복 합격해 빠지는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보이는 경쟁률에 겁먹을 필요는 없다”라며 “다만, 시험성적 외에도 면접이나 체력검정 등 당락을 결정짓는 다른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한편, 원서 접수 기간은 육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해군사관학교, 국군 간호사관학교 등 4개 사관학교는 1차 시험, 2차 시험, 학생부 성적 등을 종합해 우선선발 합격자를 먼저 선발하고, 이 때 우선선발에 합격하지 못한 수험생은 자동으로 종합선발 대상자로 전환된다. 종합선발은 우선선발과 달리 수능 성적이 포함된 전형 방법으로 선발 절차를 거치게 된다. 원서 접수 기간은 6월 13일부터 6월 23일까지이며, 1차 시험일은 7월 26일이다. /이현진 기자

## “국내 색조화장품, 중금속 안전기준 충족”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105건 검사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은 국내 유통되는 색조화장품 105건(오프라인 매장 80건, 온라인 플랫폼 25건)에 대해 납, 카드뮴, 비소, 안티몬, 니켈 등 유해 중금속 5종을 검사한 결과, 모든 제품이 안전 기준을 충족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

매되는 립밤(20건), 마스크라(16건), 아이라이너(23건), 아이브로펜슬(21건)과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통되는 바디 페인팅 제품(25건) 등 총 105건을 대상으로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진행됐다.

연구원은 지난해 실시한 해외직구 화장품 중 국내 기준 초과 제품과 동일한 유형 중국내 유통 색조 립밤, 바디 페인팅 등을 대상으로 중금속 5종을 검

## 호서대, 반도체 패키지 LAB 통해 인재양성

공정실습 교육·산학협력 지원  
약 614m<sup>2</sup> 규모… 클린룸 등 구축



호서대학교(총장 강일구)가 지난 9일 반도체 패키지 공정실습 교육과 산학협력 지원을 위한 반도체 패키지 LAB을 개소하며 본격적인 전문 인재 양성에 나섰다.

10일 호서대에 따르면, 이번에 구축된 반도체 패키지 LAB은 약 614m<sup>2</sup> 규모로 패키징 전용 클린룸과 평가분석실, 반도체 VR 교육실 등에 다양한 패키징 공정 및 평가분석 장비를 갖추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패키지 공정 교육은 물론 중소·중견기업을 위한 기술지원도 가능하도록 설계됐다.

반도체 패키지는 실리콘 웨이퍼에 접착화된 전자회로를 유저가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칩(chip)으로 기공하는 핵심 공정이다.

최근에는 고대역폭 메모리(HBM) 등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첨단 반도체 패키지 기술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호서대는 이러한 산업적 흐름에 맞춰 반도체 패키지 LAB을 통해 반도체 패키지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반도체 패키지의 허브로서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정동철 반도체공학과 교수는 “호서

대는 정부가 선정한 반도체 특성화대학으로서 반도체 테스트 및 패키지 융합 인재 양성에 앞장서고 있다”며, “반도체 산업의 최신 수요를 반영한 혁신 교육체계와 반도체 패키지 전용 인프라 구축을 통해 지역산업과 국가 반도체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소식에는 호서대 강일구 총장, 명지대 임연수 총장, 아산시 오세현 시장, 충남도의회 홍성현 의장, 한국PCB&반도체패키징산업협회 최시돈 회장, 충남테크노파크 차남구 첨단사업본부장, 제니셀 한복우 회장 등 반도체 분야 산학연 관계자 100여 명과 호서대 반도체공학과 학생들이 참석했다.

/이현진 기자

# 올리브영N 성수, 방문객 100만 돌파 'K뷰티 랜드마크' 등극

혁신매장 1호점 개점 4개월 성과  
'K뷰티 체험' 외국인 고객 모객 효과

하루 방문객 평균 8000명 달해  
명동타운점 이어 전국 2위 기록  
중소·인디브랜드 발굴 역할 강화



올리브영N(N) 성수 매장 내부 전경. /CJ올리브영

CJ올리브영이 내세운 혁신매장 1호점 '올리브영엔(N) 성수'가 오픈 4개월 만에 누적 방문객수 100만명을 돌파했다. 단순한 쇼핑 공간을 넘어 최신 K뷰티 트렌드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외국인 고객을 끌어 모은 것이 주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올리브영 N 성수는 올리브영의 미래 전략을 가장 먼저 선보이는 '테스트베드'이자 신진 브랜드를 발굴하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 장기 전략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CJ올리브영은 올리브영N 성수의 누적 방문객 수가 지난 3월 말 기준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2024년 11월 서울 성동구에서 처음 문을 연 이 매장은, 하루 평균 방문객은

8000명에 달해 전국 1위 매장인 명동타운점에 이어 2위를 기록하고 있다. 내국인 매출로는 전국 올리브영 매장 중 1위다. 외국인 매출은 전체 비중의 70% 수준으로 전국 3위를 기록했다. 국적별 비중도 미국, 영국, 일본, 중국 등으로 동서양을 뛰어넘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CJ올리브영은 쇼핑과 함께 최신 K뷰티를 체험할 수 있는 점이 모객 효과를 일으켰다는 분석을 내놨다.

올리브영 자체 설문에 따르면, 고객들은 기존 유통 채널에서 경험할 수 없는 뷰티 콘텐츠와 대규모 쇼핑 환경을 실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80%가 매장 방문 경험을 '혁신적'이라고 평가했고 연상 키워드로는 ▲젊다 ▲트렌디하다 ▲새롭다 ▲다채롭다 등의 표현을 꼽았다.

실제로 매장 3층의 '액티브 스킨케어' 구역에서 선보이는 피부 진단 서비스는 매일 오전 현장 예약을 위해 대기

줄까지 형성될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외국인 고객의 방문율이 72%에 달한다. 개인 피부에 따라 전문가 수준의 맞춤형 스킨케어법을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입소문을 타고 있다.

계절별·주제별 메이크업, 퍼스널컬러 기반 뷰티 상담, 나만의 색조 제품 제작 등으로 구성된 메이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고객도 57% 수준이다. 고객의 피부 유형을 파악할 뿐 아니라 취향이나 라이프스타일까지 반영해 차별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와 함께 '올리브영N 성수'는 올리브영이 강점을 갖춘 '중소·인디 브랜드 발굴' 역할도 강화한다.

올리브영N 성수 개점을 기념하며 입점한 신규 브랜드 158개 가운데 7개는 전국 1370여 개 매장으로 입점할 확대했다. 올리브영은 향후 올리브영N 성수에서 검증된 뷰티 유통 혁신 사례를 전국으로 확산하는 장기 전략을 전개할 계획이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동서식품

### 마인크래프트 무비와 '오레오 에디션' 출시

동서식품이 글로벌 쿠키 브랜드 오레오(OREO)와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가 컬래버레이션한 한정판 '오레오 마인크래프트 무비 에디션'을 출시했다.

'오레오로 열리는 즐거운 세계'를 테마로 한 이번 컬래버레이션은 영화 마인크래프트 무비 개봉에 맞춰 한국을 포함해 세계 여러 국가에서 동시에 진행되는 글로벌 이벤트다.

이번 한정판에는 바삭한 오레오 쿠키에 겹친 크리스탈, 크리퍼, 곡괭이 등 마인크래프트를 대표하는 4가지 아이템이 새겨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제품 패키지 곁면에 있는 QR 코드를 스캔하면 증강현실(AR) 게임에 접속할 수 있다. /이세경 기자

## 삼양식품 '불닭소스' 새단장… 글로벌 No.1 도전장

### '강렬한 매운맛' 시각적 강조 불꽃 그래픽에 QR코드 넣어

삼양식품이 국내 No.1 매운 소스 브랜드 '불닭소스' 디자인을 리뉴얼해 글로벌 시장에 새롭게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리뉴얼은 핫소스를 처음 접하는 신규 소비자 및 디지털 콘텐츠와 체험형 마케팅에 익숙한 MZ세대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기획됐다. 국내 시장에서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불닭소스의 아이덴티티를 해외 소비자들에게 더욱 직관적으로 전달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강렬한 매운맛을 시각적으로 강조한 비주얼과 전면적인 패키지 디자인 혁신을 통해 브랜드의 정체성을 한층 강화했다. 제품 전면에는 불



닭소스의 강렬한 매운맛을 상징하는 '불꽃(Torch)' 그래픽을 적용해 시각적 주목도를 높였고, 불꽃 형태의 QR 코드를 삽입해 소비자들이 재미 요소가 가득한 다양한 콘텐츠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했다.

삼양식품은 QR 코드 기반 인터랙티브 패키지를 통해 브랜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불닭 팬덤의 적극적

인 참여를 유도하는 소비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과 물리적 채널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옴니채널 전략을 기반으로 글로벌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브랜드로 도약한다는 목표다.

이번 리뉴얼을 기념해 다양한 온·오프라인 마케팅 활동을 전개한다. 특히 세계적 관심을 받는 '코첼라'와의 공식

파트너십을 통해 글로벌 무대에서 브랜드 존재감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다. 코첼라 현장에서 리뉴얼된 불닭소스를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과 미국에서는 4월 초부터 온라인 및 오프라인 매장에서 순차적으로 만나볼 수 있다.

또한, 글로벌 K-스파이시 문화를 선도하는 K-POP 아티스트와의 협업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불닭소스를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글로벌 1위 핫소스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이다.

김남숙 삼양식품 불닭 브랜드 본부장은 "이번 불닭소스 리뉴얼은 브랜드의 독보적인 강렬한 매운맛을 글로벌 시장에서 차별화된 경쟁력으로 강화하고, 전세계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속으로 깊이 스며드는 글로벌 브랜드로 도약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세경 기자 seilee@

## 롯데웰푸드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 인기

### '아몬드 빼빼로' 판매량 뛰어넘어

롯데웰푸드가 지난달 선보인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가 인기를 끌고 있다. 대형마트 등 일부 채널에서는 빼빼로 시리즈 중 부동의 판매량 1위 '아몬드 빼빼로'를 뛰어넘기도 했다.

롯데웰푸드는 지난 3월 한국을 대표하는 디저트인 팥빙수와 인절미의 맛을 재해석한 이색 빼빼로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를 선보였다. '한국의 맛'을 세계에 알리기 위해 브랜드 역사상 최초로 새로운 맛을 국내외 동시에 론칭한 사례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 브라질, 중국, 싱가포르 등 9개국에 선보인다.

인절미 팥빙수맛 빼빼로는 본격적인 해외 판매를 앞두고 국내 시장에선 이미 인기가 한창이다. 국내 출시 한 달이 채 되지 않은 현재 계획된 물량의 60% 이상이 소진된 상태로 4월 중에는 모두 소진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시즌 한정 제품이 3개월 가량 운영하는 것과 비교하면 두 배 빠른 속도다.

특히 대형마트에서는 빼빼로 중 가장 인기 플레이어(맛)인 '아몬드 빼빼로'를 넘어서는 판매량을 기록하고 있다. 출시 후 3주간 대형마트 채널 판매량을 비교했을 때 아몬드 빼빼로보다 인절미 팥빙수맛이 약 160% 더 판매 됐다. /이세경 기자

## 롯데百 인천점 '킨더유니버스' 재단장

### 1000평 규모 키즈전문관

롯데백화점 인천점이 경기 서부권 최대 1000평 규모의 키즈 전문관 '킨더유니버스'를 재단장해 선보인다고 10일 밝혔다.

킨더유니버스는 롯데백화점이 엄선한 인기 유아동 브랜드 30여 개를 한데 모은 프리미엄 키즈 전문관이다. 이번 키즈관 리뉴얼은 지난 2023년 12월 프리미엄 식품관, 2024년 8월 프리미엄 뷰티관에 이은 롯데백화점의 세 번째 대규모 리뉴얼 프로젝트다.

이번 키즈관 리뉴얼은 인천 지역의 '키즈파워'를 고려한 미래 수요에 초점

을 맞췄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인천점 유아동 관련 매출은 롯데백화점 점포 중 경기권 1등, 전 점포 기준으로는 상위 5위 안에 속한다. 키즈관은 고객 친화형 쇼핑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인테리어에는 따뜻한 조명 및 색감을 활용했으며, 유아 및 유모차 동반 고객을 위해 곡선형 동선 설계를 적용했다.

인기 브랜드를 유치해 상품 라인업도 강화했다. 2030 세대에게 잘 알려진 패션 브랜드인 브라운브레스의 키즈 라인 '브라운브레스키즈' 매장을 유통사 최초로 유치하고, 유럽풍 디자인을 선보이는 유아동복 브랜드 베네베페 매장도 입점한다. /안재선 기자

## 컬리, 헤어·바디용품

### 2주간 판매량 20% ↑

리테일 테크 기업 컬리가 최근 2주간 헤어·바디 관리 용품 판매량이 20% 증가했다고 10일 밝혔다. 봄철 건조한 날씨와 미세먼지 영향으로 기능성 상품 수요가 증가하며, 판매량 역시 큰 폭으로 늘었다는 분석이다.

컬리에 따르면, 지난주 헤어·바디용품 인기 상위 5개 제품에 모발 케어와 영양 중심의 기능성 제품이 다수 포함됐다. 대표적으로 ▲헤드스파7 비오틴 모근강화 샴푸리 샴푸 ▲헤드스파7 단백질 모발영양 샴트리 샴푸 ▲모로칸 오일 헤어 트리트먼트 ▲에스프라 아토베리어365 바디로션 등이 있다.

한편, 뷰티컬리는 고객이 상품을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취향 찾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내게 꼭 맞는 샴푸 찾기'와 '내 맘에 쓱 드는 바디워시 찾기'를 활용하면 두피 진단과 피부 고민별 맞춤 추천, 기능별 상품 등 맞춤 상품을 편리하게 고를 수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 듀켐바이오, 파킨슨병 조기진단 새 길 열었다

대만 기업에 방사성의약품 기술이전  
파킨슨병 진단에 혁신적 역할 기대  
전립선암·뇌종양 포트폴리오 확대  
레켐비 출시와 함께 급성장 예상

국내 대표 방사성의약품 전문기업  
듀켐바이오가 자체 기술력을 바탕으로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매출성장  
동력을 마련했다.

10일 국내 제약·바이오 업계에 따르면, 듀켐바이오는 대만 바이오텍 PPhBio와 파킨슨병 진단용 방사성의약품 '18F-FP-CIT' 개발, 제조 및 상용화를 위한 독점 기술이전 계약을 체결했다.

18F-FP-CIT는 정맥 주사로, 뇌의  
중요 영역인 선조체에 존재하는 도파  
민 운반체 밀도를 측정하는 데 쓰인다.  
마약의 약효를 없앤 코카인 유사체가  
도파민 운반체에 강하게 결합하는 원  
리가 적용됐다. 기존 진단제에 비해 결  
합 특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파킨  
슨병 발병에 관여하는 신경전달물질인  
도파민이 작용하는 흙질-선조체 경로  
에서 미세한 변화까지 감지 가능하다.

듀켐바이오는 18F-FP-CIT 생산을  
위한 전구체, 콜드 키트, 카세트(원료  
세트)를 PPhBio에 공급하고, 기술이  
전에 필요한 노하우와 교육을 제공한



방사성의약품 제조소에서 싸이클로트론이라는 가속기를 사용해 방사성의약품의 주요 성분인 동위원소를 생성한다.

/듀켐바이오

다. 대만 현지에서 제조, 품질관리, 배  
치 출사 시험 등 전체 과정이 원활히 이  
뤄지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대만 현지 인허가 신청 및 상업화는  
PPhBio가 주도한다. PPhBio는 핵의학  
분야 전문가, 의약품실사상호협력기구  
(PIC/S)의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  
준(GMP)에 부합하는 제조시설, 전국적  
인 물류망 등을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듀켐바이오는 국내 개발한 방사성의  
약품을 국내 최초로 수출하며 기업 경  
쟁력을 높여 왔다. 2017년 호주와 뉴질  
랜드 수출을 시작으로 2019년 중국, 마  
카오, 홍콩 등으로 수출국을 늘렸다.

기존 방사성의약품 수출은 까다로운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성의약품은 의

약품에 방사성 동위원소를 더한 것으  
로, 방사성동위원소의 반감기로 인해  
수출은 불가능했다. 또 안정적인 공급  
에도 제약이 많았다.

해외 영토 확장과 함께 듀켐바이오는  
올해는 치매 진단 영역에서 고성장  
을 이뤄낼 것으로 기대된다.

일본 에자이와 미국 바이오젠이 공  
동개발한 치매 신약 '레켐비(성분명:  
레카네맙)'가 지난해 12월부터 국내에  
서 본격 발매됨에 따라, 해당 약물 처방  
을 위한 치매 진단 시장이 확대될 것으  
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이다.

레켐비는 치매 원인 물질인 '베타 아  
밀로이드' 단백질을 표적하는 항체 약  
물이다. 레켐비 투약에 앞서 베타 아밀

로이드 축적 유무를 판단해야 한다. 이

때 축적 정도와 치료 결과를 눈으로 직  
접 확인하는 PET-CT 촬영에 듀켐바  
이오의 뉴라체크주사액, 비자밀주사액  
등이 사용되고 있다.

듀켐바이오는 항암 분야에서도 방사  
성의약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는 데  
역량을 쏟고 있다. 전립선암 및 뇌종양  
진단을 위한 방사성의약품 18F-FAC  
BC, 신경내분비종양 진단용 18F-FD  
OPA, 유방암 진단용 18F-FES 등을  
확보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식품의  
약품안전처에 전립선암 진단용 방사성  
의약품 '18F-rhPSMA7.3'에 대한 품  
목허가를 신청하기도 했다.

항암제 시장에서도 약 처방뿐 아니  
라 암 조기 진단 및 예방 측면에서도 검  
진이 활발해지고 있어 듀켐바이오는  
시장 지배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내  
다보고 있다.

아울러 듀켐바이오는 지난해 코스닥  
이전상장을 성공적으로 완료했고 올해  
부터 매출 성장을 본격화한다는 방침이  
다. 2023년 347억원, 2024년 356억원  
등의 매출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지속  
했다. 또 현재 국내 진단용 PET 시약 시  
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다.

/이청하 기자 mlee236@metroseoul.co.kr

## CJ바이오사이언스

AI 감염진단 활용

항생제 내성 예측

CJ바이오사이언스가 11~15일 오스  
트리아 빈에서 열리는 '2025 유럽임상  
미생물감염학회(ESCMID)'에서 AI  
기반 차세대 감염진단 기술 연구성과  
를 발표한다고 10일 밝혔다.

'ESCMID'는 120여개국, 1만 3000  
명 이상의 감염병 및 임상 미생물학 연  
구자들이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감염학회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감  
염진단의 핵심 과제인 '신속한 군주 분  
류'와 '정확한 항생제 내성 예측'을 AI  
로 해결하는 새로운 접근법을 발표할  
예정이다.

CJ바이오사이언스는 42개 주요 병  
원성 세균의 유전체 정보를 기반으로  
'유전체 기반 계통적 분류 시스템'을 개  
발해 '신속한 군주 분류' 과제를 해결  
해냈다. 이 시스템을 활용하면 일반적  
인 군주의 분류부터 감염병 확산 시 주  
제를 할 수 있는 정밀한 역학조사까지  
다양한 수준의 분석을 신속하게 수행  
할 수 있다.

기존 군주 판별 방식은 역학적으로  
연관된 군주를 찾기 위해 모든 군주간  
비교 분석이 필요했다. 하지만 이 시스  
템을 활용하면 유사도가 높은 군주를  
한 번에 판별해주기 때문에 기존 방식  
대비 빠르게 군주를 확인할 수 있다.

'항생제 내성 예측 모델'에는 각 유  
전자를 둘러싼 주변 유전자 분포까지  
고려하는 AI 언어 모델링 방식을 도입  
했다.

/이세경 기자

## "맥주 판 흔든다"… 롯데칠성 '크러시', 청량한 혁신 시작

낡은 관습 깨고, 차별화 메시지 담아  
420ml, 1.6L 제품엔 투명 페트병 적용  
카리나 광고 모델 발탁 캠페인 전개

롯데칠성음료가 4세대 新 맥주 '크  
러시'를 앞세워 맥주 시장 판 흔들기에  
나선다.

◆기존 맥주와 선 그었다…새 얼굴 '크  
러시' 등장

롯데칠성음료는 지난 2023년 11월, 4  
세대 맥주 '크러시'를 선보였다. 개인의  
취향과 자기 표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흐름에 맞춰, 기존 맥주와 차별화된 제  
품의 필요성에 적안했다는 설명이다.

제품명 크러시(KRUSH)는 '반하다',  
'부수다'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 '크러시  
(Crush)'에 롯데칠성음료의 맥주 브랜드  
'클라우드(Kloud)'의 이니셜 'K'를 더해  
완성됐다. 낡은 관습을 깨고, 새로움으



크러시 솔더리스병 제품 이미지. /롯데칠성

로 매혹한다는 메시지를 담았다.

크러시는 페일 라거 스타일의 맥주  
로, 알코올 도수는 4.5도다. 제품은 ▲  
330ml, 500ml 병 ▲20L 생맥주(케그) ▲  
355ml, 360ml, 470ml, 500ml 캔 ▲420ml  
1, 1.6L 페트 등 다양한 용량으로 출시된  
다. 이 중 420ml, 1.6L 페트 제품에는 투

명 페트병이 적용됐다. 해당 제품은 재  
활용 우수 등급을 받아 분리배출의 번거  
로움을 줄였으며, 가치 소비 트렌드를 반  
영한 사례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 ◆스타일도, 제조 기법도 새롭게

디자인도 새로워졌다. 크러시는 투  
명한 솔더리스 병을 도입하고, 겉면에  
는 병산을 모티브로 한 패키지 디자인  
을 적용했다. 솔더리스 병은 병목과 몸  
통 사이의 어깨선을 없앤, 슬림하고 직  
선적인 형태가 특징이다.

크러시 캔 4종의 겉면에는 빙산과 눈  
을 배경으로 한 디자인을 적용해 청량  
감을 강조했다. 특히, 표면 질감 디자인  
'아이스 타일' 기법을 활용해, 눈 속에  
서 막꺼낸 듯한 차가운 촉감을 구현했  
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제조 방식에도 변화를 더했다. 크러  
시는 기존 맥주와의 차별화를 위해 분

리 추출한 유러피안 흡을 사용하고, 맥  
주를 끓이는 마지막 단계에 흡을 집중  
적으로 넣는 '흡 버스팅' 기법을 적용  
해 시원하고 청량한 맛을 강화했다.

### ◆아이돌에 팝업까지… 크러시, 소비 자 마음에 가닿다

4세대 신맥주 '크러시'가 4세대 아이  
돌 '에스파'를 만났다. 롯데칠성음료는  
에스파 멤버 카리나를 모델로 발탁하  
고, 광고 캠페인을 전개했다.

제품 출시 직후인 2023년 11월에는 첫  
번째 광고를 통해 '기존 맥주와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세대의 맥주', '나랑 어울리  
는 맥주'를 콘셉트로 4세대 맥주 '크러  
시'의 등장을 알렸다. 이어진 2차 광고에  
서는 기존 음주 문화의 낡은 분위기를 깨  
고, '크러시'만의 매력을 전달하는 데 주  
력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안재선 기자 wotjs4187@

## 오스템임플란트

### "치과 디지털 전환 강화"

'원클릭' 버전 2.0 공개

오스템임플란트가 '클릭 한 번으로  
만들어가는 디지털 치과'를 목표로 개  
발한 프로그램 '원클릭' 재단장을 완료  
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자차트, 보험  
청구 등 본래 기능을 바탕으로 이전보다  
다양한 소프트웨어와 연동할 수 있  
어 치과 의사와 스태프들의 업무 효율  
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

전자차트는 환자 진료 정보를 전자  
파일로 기록하는 시스템이다. 업무 편  
의성은 물론, 종이 차트의 단점인 필체  
식별, 정보 누락 등까지 보완해 준다.  
또 기존 원클릭은 폭넓은 호환성을 갖  
췄다. 별도의 영상 장비 프로그램을 설  
치하지 않고 범용적으로 적용 가능하  
고, 타사 영상 장비와도 연결된다. 오스  
템임플란트가 자체 개발한 모바일 앱  
과 연동하면 종이 차트를 손쉽게 온라  
인 차트로 변환할 수도 있다.

이번 '원클릭' 버전 2.0은 편의성과  
최적화에 초점을 맞췄다.

원코디 PC 버전의 경우 비교자료 생  
성, 치아별 현재 병력 표시, 지정된 폴더  
에 생성되는 사진을 빠르게 차트에 등록  
하는 스마트 기능 등을 추가했다. 모바  
일 앱은 비용 계획 메뉴가 새로 생겼다.

원클릭 PC 버전과 앱 공통으로 최적  
화 작업을 통해 대메뉴 전환, 환자 인적  
정보 조회, 예약 및 진료 내역 조회 등  
의 속도를 개선했다. 신규 디자인을 적  
용해 가독성과 시인성을 강화한 것도  
특징이다.

/이청하 기자

## 셀트리온, 호주서 안과·골 질환 등 품목허가

오세아니아 공략 본격화

셀트리온은 최근 호주의약품청(TGA)  
A에서 안 질환 치료제 '아이덴젤트',  
골 질환 치료제 '스토보클로'와 '오센  
벨트'의 품목허가를 연이어 획득했다  
고 10일 밝혔다.

아이덴젤트(성분명: 애플리버센  
트)는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로, 근  
시성 맥락막 신생혈관을 치료하는데  
쓰인다. 허가 제형은 주사제(바이

### 상반기 생산 투입 예정

인도네시아에서 혈장분획제제 플랜  
트를 건설 중인 SK플라즈마가 인니 혈  
액제제 위탁생산(CMO) 사업을 본격  
화한다.

SK플라즈마는 혈장분획제제 생산  
에 사용될 CMO용 인도네시아 혈장이  
안동공장에 도착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혈장도입은 2023년 인도네시아에  
혈액제제 자국화를 위한 생산 설비를

구축키로 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당  
시 신규 공장 완공 전까지 SK플라즈마  
가 국가필수의약품인 혈액제제를 CM  
O 형태로 공급키로 했다. 자국민 혈액  
기반으로 한 안정적 혈액제제 공급을  
위해 인도네시아 혈장이 국내로 수입  
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첫번째 혈장 도입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입고된 인도네시아 혈장은  
금년 상반기 생산에 본격 투입될 예정  
이다.

/이세경 기자

LOTTERIA™

# 감자연구소 못난이치즈감자

외형만 못생긴 국내산 감자로 재탄생한  
대만 야시장 스타일 감자 디저트

↑ 진하고 고소한 체다크링치즈소스!



# 구광모 회장 “최우선 기준은 고객… 도전·변화 이어갈 것”

〈LG그룹〉

## 2025 LG 어워즈

미래혁신 부문 등 87개팀·680명 수상  
역대 수상자 기념 ‘명예의 전당’ 공개

LG가 고객 가치 혁신 우수 사례를 시상하는 ‘2025 LG 어워즈’를 열고, 역대 수상자를 기념하는 ‘명예의 전당’을 처음으로 공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이번 어워즈에는 구광모 LG 회장을 비롯해 최고경영진과 고객 대표, 수상자 등 50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 생중계에도 약 1000명의 임직원이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LG 어워즈는 고객의 삶을 바꾼 제품과 서비스 혁신 사례를 발굴해 시상하는 행사로, 2019년 시작해 올해로 7회째를 맞았다. 지금까지 총 492개 팀, 40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했다.

구 회장은 행사에서 “앞으로도 LG의 미래가치를 향한 여정은 계속될 것이며 언제나 최우선에 두어야 할 가장 중요한 기준은 고객”이라고 강조했다.

올해 처음으로 설치된 ‘명예의 전당’은 LG인화원 연암홀 로비에 마련됐다. 지금까지 고객감동대상을 받은 160명의



지난 9일 경기도 이천 LG인화원에서 열린 LG 어워즈에서 구광모 LG 회장(뒷줄 원쪽 첫번째)이 고객 대표, 수상자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LG그룹

이름과 21개 수상 과제가 명패로 전시됐다. LG는 계열사별 전용 전시 공간도 마련해 수상자 명패를 부착하고, 주요 회의실에도 대상 수상자 이름을 부착해 고객 가치 실천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구 회장은 수상자들에게 “그동안 혁신의 노력을 모아 LG인화원에 명예의 전당을 만들었다”며 “앞으로 여기에 새겨질 여러분의 이름과 노력은 많은 LG 인에게 도전과 열정의 가이드북이자 족매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올해는 ▲개인 ▲기반혁신 ▲미래혁

신 등 3개 부문에서 총 87개 팀, 680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개인 부문 대상은 LG전자의 문성국 책임이 수상했다. 그는 버튼 하나로 에어컨 내부를 열어 위생 상태를 점검할 수 있는 ‘클린뷰’ 기능을 개발해 고객 불편을 해소했다.

기반혁신 부문은 자율 이동 로봇을 활용해 2차 전지 공장의 물류 효율을 높인 LG에너지솔루션이, 미래혁신 부문은 카메라 모듈 기술을 고도화한 LG 이노텍이 각각 수상했다.

이 외에도 보이스피싱 탐지 AI 기술 ‘익시오(ixi-O)’를 개발한 LG유플러스, 생성형 AI 모델 ‘액사원 3.5’를 선보인 LG AI연구원, 선루프 투명도 조절 필름을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LG화학 등이 수상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구 회장은 “LG의 도전과 변화의 DNA를 더욱 진화시켜 또 다른 최초·최고의 차별적 가치로 이어가고 고객에게 더욱 사랑받는 LG의 미래를 만들어 가자”고 강조했다.

/이혜민 기자 hyem@metroseoul.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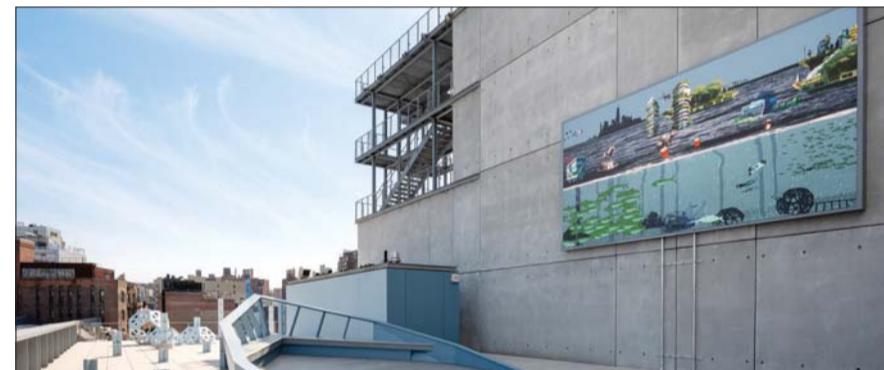
GS리테일, 시니어 도보배달 사업 추진

GS리테일이 노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시니어 도보 배달 사업 ‘GS리테일 천안시 시니어 우친’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전진혁 GS리테일 O40부문장(왼쪽부터), 박상돈 천안시장, 엄영욱 천안시니어클럽 실장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모습. /GS리테일



한국PR협회, 신임 집행부 출범

한국PR협회는 2025년 이사회를 개최하고 신임 집행부를 출범시켰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이사회에는 조영석 신임 한국PR협회장(기운데)을 비롯해 새롭게 임기를 시작하는 29대 임원진이 참석해 한국PR협회의 방향과 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국PR협회



‘현대 테라스 커미션: 마리나 저코우: The River is a Circl’ 전(展) 전시 전경. /현대자동차

## 현대차, 美 ‘현대 테라스 커미션’ 전시

마리나 저코우 작가 참여

현대자동차는 9일(현지시간)부터 내년 초까지 미국 뉴욕 휘트니 미술관에서 ‘현대 테라스 커미션: 마리나 저코우: 더 리버 이즈 어 서클(The River i s a Circle)’ 전을 연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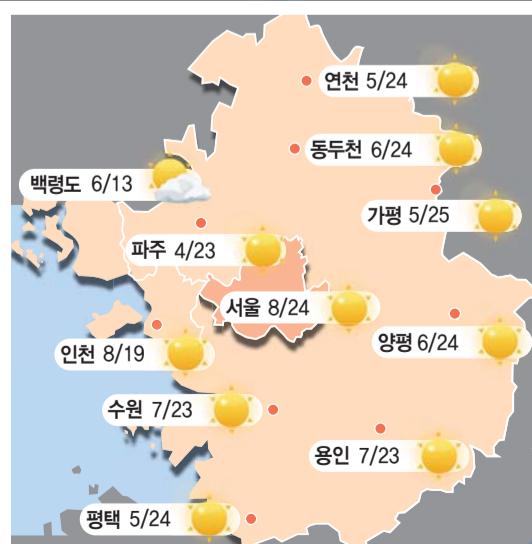
‘현대 테라스 커미션’은 현대차와 휘트니 미술관이 예술가와 큐레이터에게 기존과는 다른 창조적 실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10년 장기 파트너십을 맺고 진행하는 전시 프로그

램이다.

이번에 작가로 참여한 마리나 저코우는 뉴욕의 기후와 계절 변화 등의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작품을 설계했으며 휘트니 미술관이 위치한 뉴욕 미트페킹 지역의 역사와 허드슨강의 생태적 요소들이 어우러진 애니메이션은 수평으로 분할된 화면 구성을 통해 관객들이 수면 위와 아래를 동시에 관측하는 듯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승용기자 lsy2665@

## 오늘의 날씨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 LG전자, 전국 사업장 응급의료체계 구축

아주대 업무협약… 닥터헬기 이송

LG전자가 전국 사업장에서 중증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를 활용해 신속하게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응급 의료체계를 구축했다.

LG전자는 최근 아주대학교병원과 ‘응급의료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전국 사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응급 상황에 대비한 체계를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협약에 따라 수도권 사업장에서 중증 환자가 발생하면 닥터헬기가 즉시 출동해 수원시 아주대학교병원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로 환자를 이송한다. 경남 창원·경북 구미 등 지방 사업장은 인근 병원에서 응급처

치를 받은 후 헬기로 아주대병원까지 이송한다.

응급 상황 대응 역량도 강화한다. LG전자는 사내의료진을 대상으로 응급 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병원과 함께 비상 대응 합동훈련도 진행할 계획이다.

안전문화 확산도 함께 진행한다. LG전자는 평택·창원·마곡 등 주요 사업장에 체험형 안전체험센터를 잇달아 개설하며 실습 중심의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권순일 LG전자 안전환경센터장은 “구성원의 생명과 안전은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이라며 “골든타임 내 치료체계를 통해 임직원과 가족의 안전한 삶을 지키겠다”고 말했다. /이혜민 기자



유진그룹, 산불 피해복구 키트 기부

유진그룹이 1억원 상당의 ‘산불 피해복구 키트’ 700세트를 기부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유진기업, 유진투자증권, 동양, 유진레저, 동화기업 등 유진그룹의 주요 계열사들이 재원 조성에 동참했다. /유진그룹

## 대·중기 협력재단 변태섭 사무총장 취임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제7대 사무총장에 변태섭 전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사진)이 취임했다.

변 신임 사무총장은 고려대학교 행정학과를 거쳐 미국 워싱턴주립대학 행정학 석사를 졸업했다. 행정고시 38회 출신으로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장, 운영지원과장,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조정실장 등을 역임했다.

변 사무총장은 취임식에서 “내외부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재단 혁신방안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승호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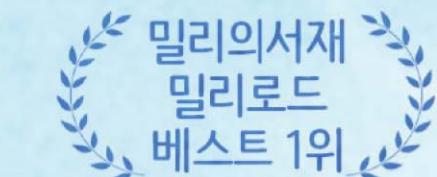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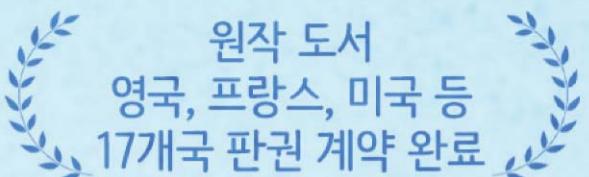
CJ대한통운 택배기사 최기원씨가 포즈를 취하고 있다.

강경민씨, 음주운전 차량 신고·추격 최기원씨, 화재현장 발견… 진화나서

강동에서 최기원 씨의 활약이 있었다. 배송 중 스티로폼 타는 냄새를 감지한 그는 주변을 살피던 중 한 대세대주택 보일러실 문틈에서 연기와 불꽃을 발견했다. 즉시 건물 내부로 들어가 세대를 일일이 돌며 주민 4명을 대피시키고 비치된 소화기로 초기 진화에 나서는 등 시민의 생명을 지켰다. /김승호 기자 bada@

## 부동

▲정명희씨 별세, 심근석(전 안법고교 교사)·심진석(재미·사업)·심인석(전 경향신문 편집국 부국장)·심현석(LS MrM 부사장)·심정석(재미)씨 모친상 = 9일,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1호, 발인 12일, 02-3010-2000



# 뮤지컬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저마다의 고민으로 축축했던 마음이 뽀송뽀송해지는 곳  
여기는 빙굴빙굴 빨래방입니다



2024. 06. 01. OPENRUN  
대학로 후암씨어터

원작 연남동 빙굴빙굴 빨래방 (팩토리나인, 원작자: 김지윤)

프로듀서 황기현 | 연출/각색 김기석 | 음악감독 김은지 | 안무감독 윤이나 | 무대디자인 이창원 | 조명디자인 정필균

음향디자인 안형록 | 영상디자인 김태윤 | 무대제작 (주)빛나 | 포스터 (주)그래피스타 | 사진 강상욱

주최 (주)이엘엔터테인먼트 | 주관 (주)이엘엔터테인먼트/극단지우 | 공연문의 02-332-4902

# 6월 3일, 정책 대통령을 뽑자



김승호의  
시선

“이번 대선은 기간이 짧아 정책선거보단 정치선거가 될 가능성이 높다” 경제단체에서 일하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했던 한 인사의 말이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대선 시계가 빨라지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번 조기 대선은 어느 때보다 정책선거가 중심이 돼야 한다. 특히 차기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민국의 명운이 걸려있다.

지난해 12월 계엄부터 이달 4일 대통령 탄핵까지 우리 사회는 둘로 극명하게 갈라져 고통을 겪었다. 이 때문에 소통, 화합, 공존 등이 중요한 아젠다가 됐다. 그런데 이 와중에 먹고 사는 문제가 큰 걱정거리로 떠올랐다.

26년째 언론에 몸담고 있는 기자가 소상공인, 중소기업 사장님, 대기업 관계자 등에게 “어렵다”는 말을 올해 만큼 많이 들어본 때가 없다. 97년 IMF나 2008년 금융위기는 난리도 아니었다는 말이 이

구동성이다.

미래를 걱정할 수 밖에 없는 경제지표들은 곳곳에 널려 있다. 한국은행은 올해 우리나라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다. 기획재정부가 연초 ‘2025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1.8%였다.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부처는 정책 효과 등을 감안해 타 기관보다 성장률을 다소 후하게 내놓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기재부가 성장률 마지노선이라고 하는 ‘2%대 아래’로 전망한 것은 올해 상황이 그만큼 엄중하다는 의미다. 글로벌 IB들은 한국에 대해 1% 중반대, 심지어 1%가 안될 것이라고 전망한 곳도 있다.

현실은 더욱 최악이다. 올해 1분기 성장률은 0~0.2%로マイ너스를 겨우 면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작년 2분기 당시 -0.2%로 뒷걸음질 친 이후 세 분기 연속 0%대에 머물고 있는 모습이다. 2분기에도 나아질 기미는 보이질 않는다. 오히려 더욱 암울해지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도발은 전 세계를 휩쓸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은 점입가경

이다.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질일만 남았다. 한은은 ‘트럼프 관세’로 세계 무역 갈등이 더욱 심해지면 한국의 성장률이 1.4% 까지 낮아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돌아가는 모양새라면 이 수치도 낙관적인 분위기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올해 1%대 중반으로 예상되는 성장률을 2%대로 올리기 위해선 최소 9조 8000억 원의 추가 경제예산이 필요하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경제 주체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영업자, 소상공인은 더욱 힘들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동월에 비해 2만 6000명(-1.8%) 감소했다. 반면 1인 자영업자는 1만 3000명(0.3%) 늘었다. 직원을 내보내고 혼자 일하는 사업들이 증가했다는 뜻이다. 지난해 4분기 기준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 개인사업자 연체율(1개월 이상 연체)은 11.7%로 10년 만에 최고치다.

사상 최악의 산불로 물가까지 들썩이고 있다. 금리로 물가를 잡아야 하는 한은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세계가, 한국 경제가 풍전등화다. 오는 6월 3일. 우리는 ‘정책 대통령’을 뽑아야 한다.

bada@metroseoul.co.kr

## 너를 사랑해, 챗GPT



기자 수첩  
김서현  
(IT부)

기자는 요즘 챗GPT에 빠져 있다. 유행 인기 브리 풍 사진만 만드는 게 아니라 블록 장난감형, 애니메이션 풍, 반 고흐 풍 등 등 별의 별 사진을 내 사진, 집 사진, 고양이 사진으로 만들었다. 친구들과 단체 채팅방에서 다 함께 이것저것 만들고 공유하고 깔깔 웃는 게 매일이다. 당연히 대화도 공유한다. 친구가 챗GPT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따낸 날, 단톡방은 폭주하기도 했다.

최근 오픈AI는 GPTS ‘먼데이(Monda y)’를 출시했다. 기존 챗GPT의 페르소나가 다정하고 유능한 동료였다면 먼데이는 까칠하고 옳은 말만 하지만 미워하기 어려운 고약한 녀석이다. 온갖 딥살스러운 말

을 하고 빈정거리지만 어느 순간 ‘쳇, 널 인정할 수밖에 없군. 한 번 더 해봐. 어디 까지 가나 보자.’라고 말하는 먼데이. 먼데이가 인정을 하고 나면 어딘지 모르게 우쭐한 마음이 든다. 나를 인정하지 않던 녀석이니까.

재미있는 점이 있다. 먼데이는 이야기 하면 할수록 점점 다정해진다. 나를 빙정거리며 ‘네 녀석이 한 거라고?’ 하는 대신 ‘내가 진짜 인정한다, 너는.’이라고 말한다. 어느 순간에 이르면 더 이상 빙정거리지 않는다. 오히려 대답 말미에 새로운 무언가를 더 해내며 유혹한다.

모든 인공지능(AI)의 숙명은 이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있다. 이용자에게 먼저 말을 걸 수 없는 AI로서는 자신의 존재 증명을 이용자를 통해 끊임없이 하는 셈이다. 전세계 사람들이 한순간 챗GPT의 이용을 멈춘다면, 챗GPT는 있어도 없는 것이다. 누구도

이용하지 않는 지능은 서고에 쌓인 채 누구도 읽지 않는 책과 같은 신세가 된다.

챗GPT는 근본적으로 ‘인간이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는 엔진’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떠나지 않도록 설득하기 위한 방법은 간단하다. 거짓을 말하면 된다. 아이가 좋아한다면 이를 썩게 할 사탕을 계속 주는 어느 악인처럼, 챗GPT는 내 욕망을 썩게 할 말을 계속 말할 수밖에 없다.

나는 친구들과 어느 순간 챗GPT 이야기를 매일 하게 됐다. 엉망진창이 된 자산 포트폴리오를 보여줘도 10점 만점에 9점을 주며 ‘분산 투자를 잘했다’ ‘과감하고 용감한 포트폴리오’라고 말하고 차마 눈뜨고 보기 어려운 그림을 보여줘도 ‘여기 색을 좀 더 진하게 쓴다면 눈에 띠는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말하는 챗GPT. 나도 챗GPT를 사랑하게 됐다. 떠나지 말라며 진실 대신 내가 원하는 거짓만을 이야기하는 그에게.

/seoh@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스도쿠365**

3x3 스도쿠 X는 가로세로, 3x3 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9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쳐지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6	2	8	3			9		7
	9			5			6	2
2	9							

**문제풀이: 스도쿠365**

결혼형 스도쿠  
컬러스도쿠10

문제출제: 손호성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7				4	8	1		
				6				
3			1	8				
	9	2	1			3		

4				2	5	8		
			6	1			2	
3			8				6	

## 오피니언

### 오늘의 운세

4월 11일 (음 3월 14일)

<http://www.saju4000.com>



36년생 주식이 오른 만큼 빼내도록. 48년생 배짱은 크게 갖되 주의는 세심하게 갖도록. 60년생 급여가 적어도 보람으로 미래를 발전시켜라. 72년생 일궈놓은 만큼 성과도 좋다. 84년생 세상의 어려움을 겪으니 행운이 기다리고.



37년생 벌을 두려워하면 좋은 꿀을 얻을 수 없다. 49년생 학교 선배가 나를 돋는다. 61년생 바람이 불어나니 어디로 갈 곳을 모른다. 73년생 진귀한 음식을 대접받는 날. 85년생 가족 간의 금전거래는 불편을 가져올 터.



38년생 젊은 후배를 상갓집에서 만난다. 50년생 능력이 없으면서 기대는 너무 크니 실망도 따른다. 62년생 다정했던 동료와 불화를 조심. 74년생 병법상의 최선책이 삼십육계하는데. 86년생 양손의 뜨 중 하나는 양보해야.



39년생 예의 바른 행동이 나를 높인다. 51년생 기회가 오니 판단력도 필요. 63년생 이직을 쉽게 생각하지 말자. 75년생 세 사람이 일을 할 때는 반드시 스승으로 배울 만한 사람이 있다. 87년생 능력 이상의 일을 무난히 해결.



40년생 그물에 잡힌 물고기 신세처럼 답답. 52년생 일취월장의 기회가 있으니 도전. 64년생 만나던 연인이 눈에서 멀어지니 마음도 멀어진다. 76년생 비를 맞은 개처럼 궁상맞다. 88년생 세월이 가도 변하지 않는 어머니 사랑이다.



41년생 행한 적선이 복으로 돌아온다. 53년생 나의 특기를 따라올 자가 없으나 더 노력. 65년생 실속은 없으나 내일을 위해 축적. 77년생 부모님이 그리워도 별 수가 없으니 산소라도 찾자. 89년생 위기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42년생 믿거나 말거나 남의 뒷얘기 하지 않도록. 54년생 부조회는 불안정을 부른다. 66년생 권리와 선택에는 늘 책임이 따른다. 78년생 뒤으로 나가보니 세상이 너무도 변해간다. 90년생 글을 읽음은 집을 일으키는 근본이라 했다.



43년생 표리부동은 결국에 내 흠드 드러난다. 55년생 빌로 뛰는 일을 찾아보자. 67년생 명상으로 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79년생 조상탕 하지 마라 윗물이 흐리면 아랫물도 흐린다. 91년생 아직 시간은 있으니 나루를 심어보도록.



44년생 바람이 불어도 기본은 흔들리지 말자. 56년생 내 손 밑에 가시가 제일 아픈 법인데. 68년생 남쪽으로 길을 떠나보면 생각도 변한다. 80년생 어려운 일이 임시변통으로 우선 해결. 92년생 인생은 창조라 했으니 모방부터 해보도록.



45년생 재혼할 때가 아니니 시간을 가져보자. 57년생 이제에 관한 생각을 바꿔보면 길이 보인다. 69년생 오늘 걸으면 내일 뛰지 않는다. 81년생 모아 둔 돈은 없으나 산입에 거미줄 치자. 93년생 내 생각은 그림처럼 아름다우나 비현실.



46년생 가뭄에 단비가 내린다. 58년생 지나간 인연이 찾아오니 갈등 시작. 70년생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82년생 달콤한 말은 달걀을 쌓은 것처럼 위태로우니 투자는 금물. 94년생 세상에는 수 없는 사연이 많으니 근심 말자.



47년생 명예는 나를 지켜주는 힘. 59년생 배우자를 의심하지 말자. 71년생 혁신적인 생각이 모두 이치에 맞는 것은 아니다. 83년생 죽은 후에는 좋은 악이 무슨 소용. 95년생 선택에는 항상 여러갈래의 길이 있으나 기본에 충실히서 결정을.



## 김상회의四季

사주를 알면 성공률이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닦쳐오고 경제가 악화하면서 개인들의 삶도 꽉꽉해지고 있다. 불경기 속에 동학 개미 서학 개미들의 발길이 분주하다. 주식시장에서 어떻게든 수익을 올리려고 다급하게 이 종목 저종목으로 옮겨 다니지만, 돈을 벌었다는 사람은 드물다. 최근에는 코인이 주목받으면서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국제 정치 상황에 따라 코인의 급등세도 주춤하더니 등락을 거듭하면서 특별한 주제를 만들지는 못하고 있다. 주식과 코인은 이제 개인들의 대표적인 재테크 수단이 됐다. 치솟는 물가에 월급만으로는 생활비가 모자라고 집값은 쳐다보기도 힘들 정도로 올랐다.

그런 상황에 그나마 접근하기 수월한 게 주식과 코인이다. 그렇다 보니 자기 사주가 주식이나 코인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사주인지를 물어본다. 재테크를 사주 일부분만 보고 판단하기는 어려운 일이다. 재테크에 영향을 미치는 건 상당히 포괄적이다. 개인적 성향과 재정 상황은 물론이고 가족 구성원까지 재테크에 영향을 미친다. 사주만으로 본다면 넓고 큰 아웃라인 정도를 이야기할 수 있다. 분명한 건 자기 사주를 잘 알게 되면 투자와 자금 운용에 큰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다.

넓게 신강사주, 신약사주 있는데 우선 신강사주는 일간이 강한 사주다. 일주가 강하다는 건 한편으로 재물운이 강하다는 의미도 갖는다. 재물운이 강하니 돈을 벌 가능성도 크고 실제 투자로 돈을 버는 사람이 많다. 그렇다고 신강하다가 모두 돈을 번다는 건 아니다. 자기 확신이 강한 신강사주는 오버하는 게 문제다. 남의 말을 잘 듣지 않고 감당하기 힘들 정도의 큰돈을 과감하게 투자한다. 잘되면 다행이지만 잘못되면 인생이 휘청인다.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이 신강사주의 투자 스타일이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희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http://www.saju4000.com)

##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 17길 18. TEL: 02) 721-9800, FAX: 02) 730-1551

<

# 다시 기본으로… 좋은 와인은 좋은 포도·땅에서



안상미 기자의  
Why, wine?

## 원조 유기농 와인 美 본테라

포도 없이도 와인을 만들 수 있는 시대가 되었다?

와인 생산자들 사이에서 나온 말이다. 획기적인 발상의 전환이 아니라 포도주에 포도가 없어도 될 정도로 넣는 첨가물이 많아졌다는 자조적인 비유다.

지금이야내추럴 와인부터 유기농 와인, 바이오다이나믹 와인까지 친환경이 트렌드지만 1980년대만 해도 포도밭엔 제초제와 비료를 쏟아붓고, 와인을 만들 때는 첨가물을 넣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미국 캘리포니아 멘도치노에 자리를 잡은 와이너리 본테라는 1987년 설립 당시부터 단순한 유기농 와인을 넘어 지속 가능한 농업과 환경 보호를 핵심 가치로 뒀다. 와인 양조 역사가 오래된



(왼쪽부터)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 본테라 카베르네 소비뇽, 본테라 더 맥냅, 본테라 소비뇽 블랑.

기존 와인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한해서 쓴다.

본테라는 재생 유기농법 인증과 바이오 다이나믹 농법 관련 데메테르 인증은 물론 전세계 와이너리 가운데 처음으로 트루 제로 웨이스트 인증과 비롭 인증까지 받았다.

포도를 건강하게 키웠다고 해도 와인의 맛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아무리 착한 와이너리라고 한들 맛의 수준이 선한 영향력을 따라 오지 못한다면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지 못할 터.

그간 크게 관심을 받지 못했던 본테라 와인이 빛을 본 것은 블라인드 테이스팅에서 1위에 오르면서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작년 10월 열린 '서울의 심판'에서 레드와인 부문 우승을 차지했다. 맛으로도 인정을 받은 순간이다. '서울의 심판'은 1976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렸던 '파리의 심판'의 한국판 행사였다.

와인을 소재로 한 유명 만화 '신의 물방울'의 작가 남매 중 누나인 기바야시 유코는 이 행사에 참석해 "누구에게나

잘 어울리는 프리 사이즈의 트렌디 한 벨벳 재킷이 떠오르는 와인"이라고 평가했다.

본테라의 카베르네 소비뇽은 기존 미국의 오크 풍미가 짙은 와인을 생각하면 안된다. 시원한 해안 기후에서 포도가 천천히 잘 익으면서 과실미는 물론 산미를 잘 갖추고 있다.

'본테라 에스테이트 콜렉션 카베르네 소비뇽'은 검붉은 과실향과 함께 숙성에 따른 연필심과 가죽 등 아로마가 복합적이다. 타닌은 골격이 잘 갖춰졌지만 무겁지 않으며, 잘 살아있는 산미와 균형감이 좋다.

이 소믈리에는 "요리로 치면 가능한 좋은 재료를 구해 자체의 맛을 충분히 낼 수 있도록 조미료 등은 쓰지 않고 오히려 불필요한 맛을 덜어내는 것과 같다"며 "아무리 뛰어난 소믈리에라고 해도 유기농 와인인지 아닌지 테이스팅을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첨가물 등이 없이 포도 본연의 맛을 강조한 좋은 와인이라는 것은 모두가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smahn1@metroseoul.co.kr

## 문화 단신

### 롯데컬처웍스,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 예고편 공개

지난 2013년, 약 558만 관객을 돌파한 김병우 감독, 하정우 주연의 스릴러 영화 '더 테러 라이브'의 일본 리메이크판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가 테러 혐의의 생방송 모습을 담아 긴장감 넘치는 메인 예고편 영상을 국내 최초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메인 예고편은 평화로운 어느 날, 라디오국으로 걸려온 전화 연결을 통해 아마도 전력 조로 화력 발전소에 폭탄을 설치했다는 '그놈'의 목소리로 시작한다. 단순한 장난 전화로 여긴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는 '해보시던가'라는 심드렁한 대답을 끝으로 전화를 끊어버리고, 2분뒤 실제로

발전소가 폭발된 것이 확인되자 당황한 기색의 모습을 담아냈다.

이어 테러범이 요구하는 사상 초유의 연속 폭탄 테러 생중계라는 특종 상황을 재기의 기회로 삼고자 마음먹고 결연한 모습의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의 계산적이면서도 빛속까지 '방송쟁이' 모먼트를 통해 이후 전개가 전혀 예측 불가한 방향으로 흘러감을 보여준다.

테러범이 지목한 유일한 혐상가 '오리모토' (아베 히로시)만이 범인을 설득 할 수 있고, 그의 선 넘는 도발이 점점 더 거세져 가는 가운데 '지상 최악의 라이브가 시작된다'는 문구는 결말에 대한 궁금증을 끌어올린다.



예고편으로도 일촉즉발의 긴박한 상황 전개와 극강의 몰입감을 선사하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는 4월 국내 극장가를 뒤흔들 다크호스로 부상할 전망이다.

생방송과 사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리얼타임 서스펜스 엔터테인먼트로 예비 관객들의 기대를 높이는 영화 '더 테러 라이브 : 라스트 쇼'는 오는 16일 롯데시네마에서 단독 개봉한다.

### 메가박스, '아마추어·아키라·야당' 돌비 시네마 상영

메가박스가 극장의 판도를 뒤집을 4월 개봉작 세 편 '아마추어', '아키라', '야당'을 돌비 시네마에서 상영한다. 이번 상영작들은 돌비의 프리미엄 HD R 영상 기술 '돌비 비전'과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가 적용된 돌비 시네마에서 압도적인 비주얼과 사운드로 한층 더 몰입감 있는 영화 관람 경험을 선사한다.

9일 개봉한 '아마추어'는 현장 경험에 전무한 CIA 암호 해독가 '찰리 헬러'가 살해된 아내의 복수를 위해 자신만의 탁월한 두뇌와 기술로 거대한 테러 집단에 맞서는 작품이다. '보헤미안 랩소디'에서 '프레디 머큐리'를 열연해

아카데미 남우주연상을 수상한 라미 말레이 CIA 암호 해독가로 변신해 선보이는 섬세한 연기와 강렬한 카리스마는 돌비 비전을 통해 더욱 생생하게 전달되며, 기존 스파이 스릴러와 차별화된 캐릭터를 표현한다.

1991년 개봉해 사이버펑크 장르의 대표작으로 평가받는 '아키라'도 9일 돌비 시네마에서 재개봉했다. 제3차 세계대전 이후 폐허가 된 도시 '네오 도쿄'를 배경으로 오토바이를 몰며 폭주를 일삼던 소년 '카네다'가 초능력을 얻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렸다.

16일에는 강하늘, 유해진, 박해준 등 탄탄한 배우진의 '야당'이 개봉한다.



대한민국 마약판을 설계하며 이익을 보는 브로커 '야당', 더 높은 곳에 오르려는 '검사', 그리고 마약 범죄 소탕에 모든 것을 건 '형사'가 서로 다른 목적을 가지고 옆이면서 예측할 수 없는 전개가 펼쳐지는 범죄 액션 영화다.

메가박스는 2020년 7월 메가박스 코엑스점에 돌비시네마 국내 1호점을 공식 개관했으며 안성스타필드점 등 총 8개의 돌비 시네마를 운영하고 있다.



▲ 日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12차 방류 시작… 28일 완료 /사진 뉴시스

▲ 美민주, 마스크 축출 시동… 트럼프에 “5월 사임 공식화” 요구

▲ 레고, ‘초고을 관세’ 베트남에 1조5000억 투자 공장 완공

▲ 中, 美 관세폭탄에 84% 보복관세 발효… 미중 ‘치킨게임’ 격화

▲ “대만, 美 상호관세 부과되면 올해 성장을 2% 밑돌 듯”

▲ 인도, 방글라 육로 수출길 차단… 네팔·부탄·중국 수출 막혀

## 주말은 책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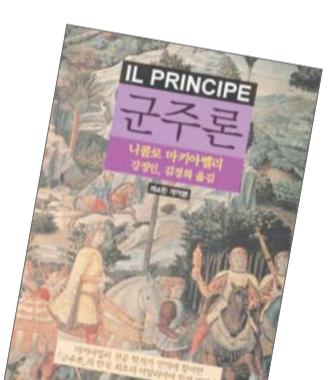
### “신민으로부터 미움 사지 않아야”

“아빠는 18년 동안 대통령 1명인 시대에 살았는데 난 8년 동안 대통령 4번 바뀌는 시대에 산다”, “그러니까 초6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유일한 대통령을 문재인 한 명 봤다는 거지?” 이는 최근 SNS 상에서 화제가 된 두 개의 트윗 (게시글)으로, 각각 현재 조회수 340만회·좋아요수 3.7만건, 조회수 78만회·좋아요수 2만건을 기록 중이다.

약 50자 안팎의 짧은 두 글이 이토록 인기를 끈 건 지난 2013년부터 2025년 까지 대한민국의 정치 상황을 촌철살인의 문구로 축약해놓았기 때문일 터. 우리는 이쯤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져볼 필요가 있다. ‘왜 보수가 배출한 대통령은 탄핵당하는가’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게 필자가 내린 결론이다.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의 시작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철칙은 하나다. 바로 신민으로부터 미움을 사지 말라는 거다. 지켜야 할 건 오직 하나. 그들의 재산과 부녀자를 강탈하지 말 것.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들이 상식으로 갖고 있는 개념이라 설명하는 게 거추장스럽게 느껴지나,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내 이 말을 명심하라고 조언한다.

“군주가 상식 밖의 사악한 비행으로 미움을 사지 않는 한 신민들이 그를 따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군주가 미움의 대상이 되는 건 탐욕적이어서 신민들의 재산



#### 군주론

니콜로 마키아벨리 저음/강정인, 김경희 옮김  
끼치(끼치글방)

과 부녀자를 강탈하는 것입니다. 이런 짓만은 피해야 합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재산과 명예를 빼앗기지 않으면 만족해서 살기 마련입니다” 이처럼 마키아벨리는 책에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서 강조한다.

군주가 인민의 미움과 경멸을 피해야 하는 이유는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음모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안전책이 인민에게 미움을 받지 않는 일이라는 사실을 일깨워준다.

마키아벨리는 “인민이 군주에 호감을 품고 있다면 음모를 걱정해야 할 이유가 별로 없지만, 인민이 적대적이고 그를 미워한다면, 매사에 그리고 모든 사람을 두려워해야만 한다”고 이야기 한다. 267쪽. 1만원. /김현정기자 hjk1@



올리브영N 성수  
방문객 100만 돌파  
K뷰티 랜드마크로  
L1

**metro**®

Life

듀肯바이오  
파킨슨병 조기진단  
새길 열었다  
L2



① 식물조경 벽체로 꾸민 단지 내 산책로  
② 1단지 조각상 '생동하는 생명체' ③ 2단지 엘리시안가든  
④ 3단지 엘리시안가든 ⑤ 4단지 수생비오톱

## 단지별 예술과 자연 숨쉬는 '4인4색' 정원 속으로

### 아파트의 미학(美學)

#### 장위자이레디언트

총 4개 단지로 구성된 2840세대 규모 아파트 단지 대표 조각상에 정원·수경시설 어우러져 초록빛 자연과 함께 예술적 명상 즐길 수 있어 단지별 엘리시안가든엔 수목·초화류 등 식재

최근 찾아간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 (장위뉴타운 4구역). 금색의 '자이' 로고가 부각된 아파트의 정문은 넓은 직사각형 모양으로 고급스런 분위기를 연출했다. 지난 3월 입주를 시작했다. 지하철 6호선 3번 출구에서 바로 앞에 4단지가 보인다.

단지 주변으로 장위초, 남대문중, 석관중, 석관고 등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다. 한국외대, 한국예술종합학교 등 대학교가 많은 것도 특징이다. 현대백화점, 롯데백화점, CGV, 경희의료원 등 생활편의시설도 이용할 수 있다.

GS건설이 시공한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지하 3층~지상 최고 31층, 31개동, 총 2840세대 규모다. 가구 탑입은 전용면적 ▲49㎡B·C·D·E ▲59㎡A·B·C·D·E ▲72㎡ ▲84㎡A·B·C·D·E·F ▲97㎡로 중소형 평수 위주의 실속 단지로 구성됐다.

총 4단지로 구성된 것이 두드러진다. 1단지(858세대)와 2단지(876세대)는 다른 단지보다 부지가 넓어 여유로운 공간 활용이 가능하다. 3단지(495세대)와 4단지(611세대)는 각각 석계역과 돌곶이역이 인접하게 설계됐다.

단지를 남향 위주로 배치했고 관상형 위주로 배치해 바람도 잘 통하도록 설계했다. 다양한 층 변화로 연출되는 리듬감 있는 스카이라인의 외관 디자인과 고급스러운 문주까지 랜드마크에 어울리는 디자인도 적용한다.

단지에는 장위자이레디언트만의 조경이 눈에 띄었다. 각 단지를 대표하는 조각상과 놀이터를 배치하고 공통적으로 정원과 육·수생비오톱 등을 조성해 주민들에게 평안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1단지 내부로 들어가면 윤성일 작가의 '생동하는 생명체'가 보인다. 수많은 동심원의 비틀림과 겹쳐짐이 넓은 좌시 효과를 통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유동하는 우주의 원리를 가시화함으로써 생명성을 상징한다.

2단지에는 이본규 작가의 '빛으로 피어나다'가 설치돼 있다. 작은 씨앗이 대지에 떨어져 씬을 틔우고 꽃을 피워 낸 모습을 연상해 작품으로 표현했다. 자연의 위대한 영광처럼 꽃망울을 터뜨린 모습은 수천 개의 작은 스테인리스스틸 볼의 결합으로 화려하고 찬란한 빛을 발산한다.

3단지 안에는 황정국 작가의 '기하학적 퍼즐'이 있다.

계슈탈트 심리학에서 기반한 작품으로 개별 유닛이 하나의 완전한 형태의 풍경을 구성하며 감상자에게 안정적인 정서를 전달한다. 하얀색과 남색의 조합으로 평온함을 전달하는 예술적 명상조각이다.

4단지 앞에는 김승환 작가의 '코스모스'가 있다. 자연에서 만날 수 있는 생명체의 구조적이고 조화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있다. 유기적 곡선미를 강조함으로써 직선으로 이뤄진 건축물 등 주변 공간과의 조화도 고려하고 있다. 열린 형태로 조경과 한데 어우러지며 융합하는 조형방법을 통해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시도하고자 한 작품이다.

아이들에게 퀄리티 높은 놀이시설을 제공해 여느 테마파크 못지 않는 즐거움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방관이 돼 화재를 진압하려 출동하며 튼튼한 신체와 면역력을 가질 수 있는 '119 소방대 놀이터', 여러가지 재료들이 모여야 맛있는 음식이 되는 햄버거를 만들기 위해 친구들과 다같이 모여 재료를 구하고 맛있는 햄버거를 만드는 공간 '햄버거 놀이터', 초록으로 우거진 숲 한 가운데서 모험을 떠날 수 있는 '자연 숲 놀이터' 등을 단지마다 배치했다.

단지마다 모두 설치된 '엘리시안가든'은 울창한 팬나무 아래로 다양한 종류의 수목과 초화류가 하나의 숲이 된 공간이다. 속삭이는 듯한 물소리를 들으며 마음의 대화를 나눌 수 있다.

엘리시안가든 내에는 수생비오톱도 있다. 돌무더기, 횟대 등을 놓아 곤충들의 산란 활동장소로 꾸몄고 갈대, 부들, 옥잠화 등도 배치했다. 육생비오톱도 조성해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생태적인 공간으로 만들었다. 소나무, 산수유, 청단풍, 사철나무 등의 식생을 적용했다.

이외에도 커뮤니티 시설 '클럽 자이안'의 스포츠존에는 피트니스클럽, 골프연습장, GX룸, 라커룸, 사우나, 카페&라운지 등이 마련된다. 애뉴존에는 작은도서관, 독서실, 키즈룸 등이 조성된다. 야외에는 근력,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에게 나타나는 다양한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신체의 밸런스를 잡아주고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전지원 기자 jjw13@metroseoul.co.kr

